

기획연구  
2009-19

# 충남지역 외국인 유학생의 현황과 과제

강희숙 · 최병학 · 류재진



**CDI** 충남발전연구원  
Chungnam Development Institute

[www.cdi.re.kr](http://www.cdi.re.kr)

기획연구  
2009-19

충남지역 외국인 유학생의  
현황과 과제

2009.12

충남발전연구원

ISBN : 978-89-6124-122-9 03350



기획연구 2009-19

# 충남지역 외국인 유학생의 현황과 과제

강희숙 · 최병학 · 류재진



# 발 간 사

지식화, 산업화, 세계화로 대변되는 현시대에서는 인적·물적자원의 활발한 국제교류로 인해 우수인재 육성이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로 유입된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통해 국가간 인적교류를 증진시키고,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충남지역의 국제적인 위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외국인 유학생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및 정책적 배려 등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지역사회 내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프로그램도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충남도내 외국인 유학생의 현황과 적응실태를 살펴보고, 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특히 유학생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정부 및 충남지역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과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외국인 학생들은 한국어를 배우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학연수와 강의 효율화가 필요하고, 외국인에 대한 법적권리의 보장 등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타국에서 수학하는 것에 대한 많은 편견과 생활비 절약을 위한 아르바이트 경험, 한국 학생들과 소극적 관계 및 연락 부재, 한국어 실력 향상의 부진에 따른 귀국 등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배려와 국가정책적 지원이 많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국어 교육원의 수업내실화, 장학금 지원정책의 현실화, 유학생회의 활성화 등을 통한 이들 문화에 대한 이해와 협력이 절실하며, 이를 통해 세계화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책임 수행하신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희숙 교수님과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장 최병학 박사, 공동연구자인 공주대학교 류재진 강사님, 연구수행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심의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09년 12월 31일

충남발전연구원장 김 용 용



# 연구요약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국제적인 인적·물적 자원의 활발한 교류로 인해 국가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육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국내와 유입된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하면, 국가간 인적 교류를 증진시키고, 국가간 네트워크를 긴밀하게 함으로써 충청남도 지역의 국제적인 위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 수는 최근 4년간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법적 규정 및 정책적 배려 등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지역사회 내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제대로 확립이 되지 못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충청남도 내 외국인 유학생의 현황과 적응 실태를 알아보고, 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외국인 유학생과 충남의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살펴보고, 정부 및 충남지역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 2. 외국인 유학생 현황

외국인 유학생이 현지국에 적응(adjustment)한다는 것은 한국의 환경 속에서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잃기 않고, 자신이 능동적으로 문제에 대처하며,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을 의미있게 가꾸어 나가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학업적, 심리적, 사회적 적응 등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언어적 및 문화적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04년~ 2008년 사이에 4배 이상 증가하여 63,952명이었으며, 유학생 전공별로는 인문사회계열이 가장 많았다. 국가별로는 아시아지역이 92.8%가 가장 많으며, 북미, 유럽의 순이었고, 중국이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충남지역은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산시, 공주시, 논산시, 천안시 순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다.

## 1) 중앙정부의 지원정책

우리나라는 2012년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10만명 유치하기 위해 Study Korea Project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초정 장학금은 초청인원과 초청국가가 연도별로 증가추세에 있으나, 현실적인 물가수준을 반영한 생활비 및 장학금 인상과 확대가 필요하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프로그램은 2008년도에 7개국 11개 도시, 216개 대학이 참가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해 통한 유학안내시스템에서는 10개국어로 유학정보와 한국대학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이트의 원활한 홍보를 위해서는 최신정보를 항상 업데이트하여야 하며, 외국인 유학생의 요구도를 반영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제공하여야 한다.

## 2) 충남지역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

충남지역 지역자치단체의 외국인 유학생지원 프로그램은 충남도정 설명, 도내 산업현장 방문, 관광지 방문 등 간헐적인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향후 지자체의 연속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충남지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은 장학금지원정책이 대표적이며, 한국어 학습교육 및 도우미제도, 문화체험 및 교류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의 진행시기나 내용이 아직은 충실치 못한 경향이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지원정책은 이들이 국내에서 학업과 취업, 그리고 거주에 이르기까지 제반 생활여건을 간소화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정책적 마련이 필요하며, 유학과정에 대한 안내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거점형 외국인 유학생 종합정보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

## 3) 외국인 유학생 적응에 대한 면접 결과

충남 거주 외국인 유학생 10명과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2009년 7월 ~ 10월까지 면접 조사한 결과,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어 학습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으며, 한국학생 및 지역사회주민과 교류를 원하고 있었다. 또한 장학금제도의 확충과 외국인 유학생 도우미제도의 활성화, 외국인 유학생회 조직 등을 요구하였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관련 전문가는 한국어교양강좌 신설, 한국학생들의 외국인에 대한 편견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3. 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의 활성화 방안

#### 1) 대학 내 지원정책

첫째, 장학금지원정책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외국인 유학생은 대학정원 외 선발이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 입학은 대학에 재정적인 기여를 많이 한다.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경제적 유인정책은 자신이 유학할 나라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이다. 모든 외국인에게 일괄적으로 장학금을 주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 즉, 무조건적인 장학금의 확대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한 저평가 등 부정적인 요소를 감안하여 성적 우수 장학금의 규정을 완화하여 B학점 이상의 학생에게 수업료를 면제하는 장학금을 줌으로서 더 많은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어야 하겠다.

둘째, 외국어교육원 수업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내 어학원 수업이 전문화된 한국어 강사를 통해 양질의 수업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교과서가 사용자의 편의와 입장에 맞게는 편성된 질 높게 제작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교과과정에서의 외국인 영어 전용강좌를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다.

셋째,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문화체험 운영의 충실화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문화체험 프로그램이나 적응 프로그램은 방학이나 특정 기간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한국어 연수과정에서나 학부 초기 과정에서 지역 내 문화와 역사, 지리에 대한 교육과목을 개설하여 이를 통해 한국의 문화를 보다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넷째, 외국인 유학생회 활성화이다. 외국인 유학생의 의사결정과 의견 수렴을 위한 학생회조직을 인정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각국의 유학생끼리 상호간 네트워킹을 하고, 학교 내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 2) 지역사회외 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하다. 외국인 유학생은 향후 자신의 나라에 귀국했을 경우 충청남도 지역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충남 지역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 문화 탐방 프로그램과 산업체 연결을 통해 졸업 후 산업체 인턴십 및 취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업체와 1대 1 결연사업과 지역사회



유력인사와 1대 1 결연사업을 통해 충청남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인적 자원 활용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일원으로써 불편함이 없는 생활여건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여권과 학생증으로도 은행예출금, 의료보험혜택, 핸드폰 구입 등 다양한 사회복지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마련, 다양한 외국인들의 식생활에 맞는 먹거리 개발, 다양한 문화가 어울릴 수 있는 생활문화적 공간 확보 등에 힘써야 할 것이다.

셋째,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외국인 유학생에게 한국을 이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는 주민들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전략 마련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 차 례

제1장 서론 .....	1
1. 연구배경 .....	1
2. 연구목적 .....	2
3. 연구범위 및 방법 .....	3
제2장 충남 지역 외국인 유학생 현황 .....	4
1. 적응에 대한 이해 .....	4
2. 외국인 유학생 현황 .....	9
3. 소결 .....	15
제3장 외국인 유학생 지원 정책 .....	16
1. 중앙정부의 지원 정책 .....	16
2. 충남지역 외국인 유학생 지원 정책 .....	22
3. 외국의 유학생 지원 정책 .....	31
4. 소결 .....	39
제4장 외국인 유학생과 전문가의 면접 결과 .....	41
1. 조사개요 .....	41
2. 외국인 유학생과 전문가의 면접결과 .....	41
3. 소결 .....	51

제5장 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의 활성화 방안 .....	53
1. 대학 내 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 활성화 방안 .....	54
2. 지역사회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 .....	56
제6장 결 론 .....	57
참고문헌 .....	59
<부록 1> 외국인 유학생용 설문지 .....	62
<부록 2> 외국인 유학생관련 전문가용 설문지 .....	63
<부록 3> 외국인 주요 체류 자격 .....	64
<부록 4>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 요령 .....	68
<부록 5> 고용 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서 .....	75
<부록 6> 외국인 유학생 이탈 유형과 벌금부과 사례 .....	76
<부록 7> 대학 내 학과별 외국인 유학생 관리 지침 사례 .....	78
<부록 8> 대학 내 외국인 유학생 상담일지 .....	80

# 표 차 례

<표 2-1> 연도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	9
<표 2-2> 2008년도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현황 .....	10
<표 2-3> 출신 지역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	11
<표 2-4> 출신 국가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	12
<표 2-5> 유학 형태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	12
<표 2-6> 지역별 외국인 유학생 분포 .....	13
<표 2-7> 충남지역 대학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	14
<표 3-1> 정부초청 외국인 유학생 현황 .....	17
<표 3-2> 한국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 장학금 종류 및 내용 .....	18
<표 3-3> 2008년 유학박람회 개최 현황 .....	20
<표 3-4> 유학안내시스템 접속현황 .....	21
<표 3-5> 선문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안내 .....	23
<표 3-6> 건양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안내 .....	23
<표 3-7> 공주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안내 .....	24
<표 3-8> 한서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안내 .....	25
<표 3-9> 호서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안내 .....	25
<표 3-10> 공주영상대학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안내 .....	26
<표 3-11> 충남지역 4년제 대학별 한국어 교육과정 프로그램 .....	26
<표 3-12> 선문대학교 한국어 학습코치 .....	28
<표 3-13> 선문대학교 Writing center 학습코치 .....	28
<표 3-14> 선문대학교 학습코치 교육 .....	28
<표 3-15> 선문 peer 튜터링 프로그램 .....	29
<표 3-16> 미국의 외국인 유학생 장학 프로그램 .....	36
<표 3-17> 일본의 외국인 유학생 장학 프로그램 .....	37

<표 3-18> 호주의 외국인 유학생 장학 프로그램 .....	38
<표 4-1> 연구참여자인 외국인 유학생의 일반적 특성 .....	42
<표 4-2> 연구참여자인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전문가의 일반적 특성 .....	42

## 그림 차례

<그림 2-1> 연도별 외국인 유학생 수 .....	9
<그림 5-1>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사회 활동 .....	54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

세계화 바람과 함께 한국으로 유학 온 외국인 유학생들은 매년 급격히 증가 추세에 있다. 2008년 4월 1일 현재 국내 대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외국인은 총 63,952명으로 이는 5년 사이에 무려 4배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과거 우리나라의 유학정책이 해외로 보내는 유출적 성격이 강했다면 최근에는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만드는 유치적 성격이 강조되고 있다(이명재, 2006).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2004년부터 “study in korea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등을 통한 해외 인적자원 개발을 활성화하여 교육의 국제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유입되면 경제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국내 학생들은 외국 유학생을 통해서 그 나라의 언어와 역사, 문화와 예술, 사회와 경제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세계시민으로서의 마인드를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외국인 유학생들도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에 걸쳐 깊이 이해하게 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국에 대한 지지 세력을 확보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이다(노종희 외, 2003; 이정희, 2009 재인용).

또한 국가 간 인적 교류를 증진시키고 이러한 인적 교류는 국가 간 네트워크를 긴밀하게 하고 한 국가의 국제적 지위를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실제 선진국에서는 국경과 인종을 넘어 우수한 인력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실상은 긍정적이지 못하다. 교육인적자원부(2007)는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환경 조성으로 대학의 영어 전용강좌 및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 개설 지원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언어 구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학의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규 수업 후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 별도로 보충 수업을 실시하는 있는 대학도 있지만 보충수업의 효율성은 단기적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대부분이 자비 유학이기 때문에 생활비나 학비 면에서 여러 가지 곤란을 겪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며, 고된 아르바이트로 피곤하여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 중에는 성폭력의 위협에 놓여 있는 학생들도 있는데, 각 대학별 조사 결과 상당수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성폭력 전문 상담소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성폭력문제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서울신문, 2007년 7월 7일). 이외에도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의 의료문제는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는 외국인 유학생이 외국인 유학생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여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지방의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 의료보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이재모, 2008).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화의 바람으로 국제적인 인적 물적 자원의 흐름이 활발해지면서 한 국가나 조직이 가진 우수한 인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즉, 국가나 조직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수 인적 자원이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이기 때문이다.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정책은 관련 대학 뿐만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함께 협력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인적 자원인 외국인 유학생에 관한 현황을 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2. 연구목적

국제화 시대를 맞아 국제 교류가 활발해지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시점에서 충청남도 내 대학들의 외국인 유학생의 현황과 적응,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에 관한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외국인 유학생과 충청남도에 속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의 현황을 살펴본다.

둘째,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정부와 충청남도 내 대학별 지원 정책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셋째, 외국인 유학생들과 관련 전문가의 조사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 적응실태를 분석한다.

넷째, 외국인 유학생 관련 향후 활용방안을 도출한다.

### 3.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주요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실태 및 적응에 대한 문헌조사를 한다. 유학생관련 정책 등을 주제로 전자저널(NDL), 국회도서관, 사회과학도서관, 인터넷 서적사이트 등을 통해 수집한 단행본과 학술논문 검색 결과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각 대학교의 인터넷사이트, 교육과학부 등 정부부처를 통한 자료와 통계자료를 주사 분석한다.

둘째, 한국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심층면접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 실무 책임자를 심층 면접하여 이들의 적응실태와 활성화방안을 모색한다.

## 제2장 충남 지역 외국인 유학생 현황

### 1. 적응에 대한 이해

#### 1) 적응의 개념

적응(adjustment)이란 개념은 생물학에서 비롯된 것으로 1850년대 Darwin 이론의 기초인 '순응'이란 개념을 심리학자들이 적응이라는 용어로 개칭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적응은 주변 환경 속에 살아남기 위한 각 개인의 투쟁을 의미한다. 그러나 개체와 환경이 조화 있는 관계를 이룩해 가면서 적응의 개념도 변화하게 되었다(황지인, 2008 재인용). Adams는 적응을 개인이 주변 환경과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 즉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개인의 능력으로 보고 그 능력에 따라 개인의 생존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Arkoff(1968)는 적응이란 어떠한 환경이냐에 따라서 적응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서 한 영역에서는 잘 적응하는 사람이 다른 영역에서는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며 적응의 환경적 요소를 강조하였다. Lazarus(1976)와 Dewey(1924)는 적응에는 두 가지 측면, 즉 주어진 환경에 자신의 욕구나 행동양상을 순응시키는 수동적 측면과 자신의 욕구나 행동양상에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측면인 적응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황지인, 2008 재인용). 특히 Shaffer(1936)는 적응한다는 것, 신체적, 정신적으로 받는 실제 위기에 대처할 수 있고, 환경과 개인의 전체적인 요구를 살피고 조화시켜서 보다 많은 만족을 가져오게 하며, 사회의 규범에 합치되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조명희 외, 1998).

사회복지학적으로 적응이란 개인이 자신의 주위 환경 조건을 조정하는 능력이며,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생존을 위해 변화하는 과정이다(Zastrow & Kirst-Ashman, 2002). 즉, 훌륭한 적응이란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자신을 손상함 없이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여 변화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욕구를 현실적으로 잘 충족 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적응행동의 특징으로 독립성, 자아정체감, 통합력 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동이나 성격 유형의 경우를 부적응이라 한다.

그러나 완전한 적응과 부적응은 실제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며 모든 사람의 적응은 적응-부적응 양극사이의 연속선상에 위치해 있는 정도의 차이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적응이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통합된 개념으로 어떠한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도 자신의 다양한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고 매일의 일을 관리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 처해지더라도 그에 적합한 역할을 가지게 된다. 대학생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학생활 적응이며, 그 역할에 충실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대학생활적응이란 적응에서 고려되는 요소인 개인과 그 개인을 둘러싼 환경을 대학생 및 대학 환경으로 표현한 것이다(Arkoff, 1968). 청소년 후기 및 성년 초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적응문제는 발달학적으로도 매우 핵심적인 질문이다. 만약 대학생들이 대학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학업적·사회적 부적응까지 초래하게 된다. 즉 이는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가 가지는 문제이기도 하다(최송미, 2001 재인용).

대학생 시기는 인간의 신체적 욕구와 성격적 욕구가 집중으로 표출되어 정서적으로 강렬해지며, 심리적 변화·사회적 욕구 및 자아적 욕구의 고조가 이루어지고, 욕구 좌절의 기회도 많아지고, 사회적 경험의 미숙으로 적응에 많은 갈등을 겪게 되는 때이다. 또한, 대학생 시기는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들이 많으며, 성인으로서 틀을 형성하는 시기이다.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초기 연구에서는 학업적 성취 수준이 곧 적응의 성공 여부로 이해되어져 왔다(Gerdes & Mallinckrodt, 1994). 그러나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이 한 개인의 건강한 성장과 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때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은 학업 뿐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Baker & Siryk(1984)는 대학생활 적응을 크게 네 가지 요소로 나누었다.

첫째, 대학생활 적응은 학업적 적응을 포함한다. 학업적 적응은 학생들이 대학의 학업적 요구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 적응은 인지적 학습 능력 이상을 필요로 하며, 학업에 대한 동기·요구에 직면했을 때의 행동·학업환경과 관련된 일반적인 만족감·시간관리·분명한 목적의식이 주요 구성요소이다. 둘째, 대학생활 적응은 사회적 적응을 포함한다. 사회적 적응은 학생들이 대학생활이라고 하는 사회적 삶에 적응하는 정도, 안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 같은 사회적 관계 및 지원 조직을 형성하는 것,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관리하는 능력, 교수 및 교우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 등으로 구성

된다. 셋째, 대학생활 적응은 개인적·정서적 적응을 포함한다. 개인적·정서적 적응은 대학생들의 상호관계성, 삶의 방향, 자기 가치 및 개인의 인격 형성, 자기 존재의 본질과 위치와 역할, 자기 탐색 과정과 관련된 적응이다. 넷째, 대학생활 적응은 일반적 적응을 포함한다. 이것은 자기가 재학 중인 대학에 대한 애착 정도이다. 그리고 재학 중인 대학의 질에 대한 만족도와 학업적 목표에 대한 몰입 정도이다. 위의 네 가지 요인들을 바탕으로 대학생들이 대학 내의 생활에 정상적인 적응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대학생활 부적응이라 일컫는다.

## 2)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유학생에게 대학생활 적응이란 한국의 대학이라는 환경 속에서 환경에 의해 자신의 건강이나 행복을 잃지 않고, 자신이 능동적으로 문제에 대처하며,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고 자신의 삶을 유의미한 것으로 가꾸어 나가는 매사의 노력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정신적·신체적 건강 상태를 가리키며 외국인 유학생에게 창조성과 안정성을 전해주며, 한국 사회의 규칙·풍습·문화와 일치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상태이다.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은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적 적응·심리적 적응·사회적 적응과 관련이 있다(김은정·이정윤·오경자, 1992; 박선영, 2003). 학업적 적응은 외국인 유학생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개념들이며, 긍정적인 자기 평가·긍정적인 가치 개념·자기효능감 등이 해당된다. 심리적 적응은 외국인 유학생의 일반적인 스트레스, 개인적인 정서 및 정서적인 적응에 관한 것이다. 사회적 적응은 외국인 유학생이 가지고 있는 자아 존중감 및 통제의 외적소재, 문제 해결 능력, 자기 주장성 등에 관한 것이며, 이러한 변인들이 대인 관계에서의 불편감, 소외감, 회피 행동 등을 예측하게 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대학생활 적응을 수월하게 해내는 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으며, 대학생활 적응보다는 대학생활 부적응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나임순, 2006). 인간발달단계상 청년기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청년기 겪게 되는 대학생활적응문제와 외국인으로서 겪게 되는 대학생활 적응문제를 모두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이들이 겪는 적응 문제는 적응의 위기가 될 수도 있다. 외국인 유학생은 신체적·심리적 변화와 함께 생리적·사회적·자아적 욕구의 고조를 체험하지만, 한국 사회 내에서 욕구 좌절도 많이 겪고 여러 가지 갈등도 많이 겪는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에는 한국과 자국의 교육 체제 차이·언어차이·한국과 자국의 생활 수준차이·한국에서의 인터넷 사용·한국인 대학생과 외국인 대학생의 수강 교과

목 차이 등등 때문에 대학생활 적응에서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를 겪을 수도 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적 · 대인관계 · 소속 대학교 · 성별 · 연령 · 종교 · 주거형태 · 지역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더불어 민족 정체성 · 외국어 능력 등과 같은 요인이 있다(노충래, 2002). 둘째, 개인의 내 · 외적인 변인이 있다. 개인의 내적인 변인으로는 성격 변인, 자아 존중감, 개인통제, 자아정체감 수준, 심리적 독립의 정도 등이 있다(소영원, 1997). 개인의 외적인 변인으로는 부모의 지지, 가족과의 분리 경험 등이 있다(지선근, 1998). 셋째, 개인의 심리적 · 성격적 특성, 가정환경 등의 요인이 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은 한국인 대학생의 대학생활과 상이하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과 일본인 유학생들은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국민 · 총체적 국가에 관한 이미지에 따라 한국 사회와 대학을 다양하게 바라보고 있다(최진희, 2006). 즉,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에서 유학생생활을 하면서 자국과 한국의 차이점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고, 한국의 다각적인 이미지에 따라 대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자국의 대학이 아닌 한국이라는 타국의 대학에서 생활하는 동안 문화 차이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국가 차이 등으로 인해 문화 적응 스트레스도 경험할 수 있으며, 대학생활 부적응도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적응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과 한국인 학생의 대학생활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국내 교육시장의 현황과 직결되어 출산율 감소 등에 따른 입학생 수의 감소로 인한 고등교육기관의 존폐 위기에 따른 해결책 중의 하나로 다수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것은 한국의 대학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부적응도 초래하고 있다.

### 3) 대학적응을 위한 선행요건

일반적으로 대학적응은 학업요건이 학생본인의 노력에 의하여 충족될 수 있어서 학교생활이 원만히 지속되는 상태라고 정의된다(정현욱, 1996). 대학적응은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대학생들이 진학 후에도 학업을 중단하거나 전과 혹은 편입을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대학진학과 더불어 초래되는 학교적응의 새로운 이슈는 교육환경과 생활환경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대학교육은 전문지식을 다루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과는 교과과정과 전달방법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 정상적으로 학업을 이수하려면 고등학교 때와 구별되는 학습기술이 필요하다. 특히 강의노트 작성법, 리포트 작성법, 토의기법, 발표기법, 아이디어 조직화 기법 등이 당면한 학습기술의 예들이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이러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고 대학에 진학하기 때문에 대학생이 되면 학습기술의 결여로 심리적 부담을 경험한다.

대학진학 후 생활영역이 확대되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학생역할 외에도 여러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학생본연의 역할 외에도 서클이나 동아리 활동 사회단체의 회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때 한정된 자원과 시간을 학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위해서 소비해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역할갈등이나 역할 과부화 등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대학생들은 학비와 기타 비용을 학업과정에서 소비하기 때문에 자신이 처해 있는 경제적 여건에 관심을 쏟는다. 특히 경제적 여유가 없어 가족의 희생을 담보로 대학에 다녀야 하는 학생, 가장이면서 학업을 진행시켜야 하는 만학도, 낮은 경제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타국에 유학 온 학생은 경제적인 문제를 학교생활을 영위하는데 수반되는 중요한 어려움으로 인식하게 된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이들은 현지국가에서 사회·문화적으로 차별적인 지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학생들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이들은 학업을 계속하는 동안 문화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언어장벽을 극복해야 하는 등의 여러 부수적인 어려움을 겪는다(이현지 외, 2003). 문화적응이 외국인 유학생에게 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기존연구에서도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다. 유학생의 문화적응은 대학생생활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원, 사회적 지지 및 대인 커뮤니케이션, 매스미디어 활용과 같은 것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김현주 외, 1997; 허춘영·김광일, 1997; 이현지·남현주, 2003). 이러한 맥락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학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은 외국문화를 효과적으로 수용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지어구사능력은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적응의 선행요소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언어가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거나 전달하는 도구이자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김영성, 2006). 우리가 언어를 문화의 반영일 뿐만 아니라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결정적인 변수로 이해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홍기선, 1985). 그렇기 때문에 유학생이나 이민자가 타국에서 원활하게 문화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문

자를 읽거나 구두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언어구사능력이 새로운 사회의 문화에 적응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김현주 외, 1997; 허춘영·김광일, 1997; 김선남, 2007). 언어능력은 특히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적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이는 언어가 학업을 유지하고, 지속시켜주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즉 외국인 유학생들은 대학이 요구하는 특정 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또 그 과정에서 발표와 시험에 참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든 행위는 결국 얼마나 수업내용을 잘 이해하는가, 말하고 쓸 수 있는가의 능력과 직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구사능력이 높은 외국인 유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대학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것이다.

## 2. 외국인 유학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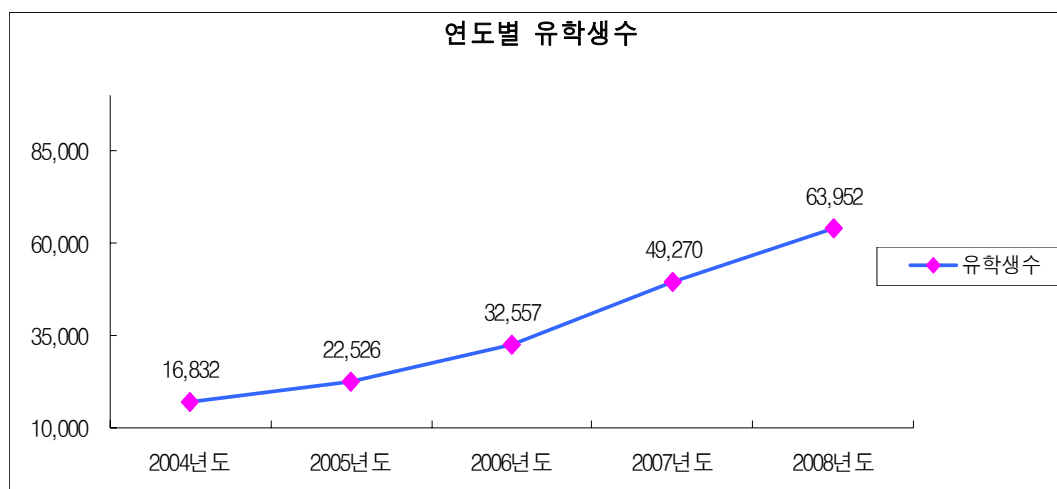
### 1) 연도별 유학생 현황

외국인 유학생은 2004년도 16,832명에서 2008년 63,952명으로 5년 사이에 4배 정도로 증가하였다.

〈표 2-1〉 연도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단위 : 명)

연 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유학생 수	16,832	22,526	32,557	49,270	63,952



〈그림 2-1〉 연도별 외국인 유학생 수



## 2) 고등교육기관 국가별 유학생 현황

외국인 유학생들의 교육별 현황을 보면 학부과정이 28,197명, 어학연수과정이 19,592명, 석사과정이 9,143명, 박사과정이 3,245명으로 나타난다. 유학생들의 전공은 인문사회계열이 학부, 석사, 박사과정에서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다음이 이공계, 그리고 예체능계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2〉 2008년도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현황

(단위 : 명)

구 분	어학 연수	학부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기 타 연 수	합 계
		이 공 계	인 문 사 회 계	예 체 능 계	소 계	이 공 계	인 문 사 회 계	예 체 능 계	소 계	이 공 계	인 문 사 회 계	예 체 능 계	소 계		
유 학 생 수	19,592	5,934	20,376	1,887	28,197	2,598	5,984	561	9,143	2,145	1,039	61	3,245	3,846	63,952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2008)

## 3) 국가별 유학생 현황

국가별 외국인 유학생의 비율을 살펴보면 아시아가 59,375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북미 2,165명, 유럽 1,559명 등이다. 이외에도 아프리카 397명, 남미 278명, 오세아니아 178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의 유학생들이 대거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경향과 함께 북미와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와 남미등과 같은 지역의 외국인 유학생들도 한국으로 유학을 많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시아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들 중 18,264명은 어학연수 과정에 있으며, 인문사회과정은 25,833명, 이공계엔 7,149명, 자연계는 3,123명, 그리고 2,362명은 예체능 관련 전공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북미의 경우 515명이 어학연수를 하고 있으며 776명은 인문사회

계열을 전공하고 있고, 49명은 이공계, 96명은 자연계에서 전공하고 있고, 86명은 예체능계 전공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유럽에서 온 유학생들은 전공은 545명이 어학연수 과정에 있고, 390명은 인문사회계열에서, 83명은 이공계에서, 18명은 자연계, 그리고 40명은 예체능 전공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아프리카에서 온 유학생들의 경우에는 어학연수 72명, 인문사회계열이 206명, 이공계 71명, 자연계 30명, 예체능계를 전공하고 있는 유학생이 3명으로 나타난다. 남미에서 유학 온 학생들의 경우에는 78명이 어학연수 과정에서 배우고 있고 130명이 인문사회계열, 29명이 이공계, 11명이 자연계, 그리고 7명이 예체능 관련 전공을 하고 있다. 오세아니아의 경우에는 47명이 어학연수 과정에서 배우고 있었으며 64명이 인문사회 전공을, 9명이 이공계와 자연계 관련 전공을 하고 있었으며 예체능 관련 전공은 11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3〉 출신 지역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단위 : 명)

지 역	어학연수	과 정 별					기 타	합 계
		인문 사회	이공	자연계	예체능	계		
아시아	18,264	25,833	7,149	3,123	2,362	38,467	2,644	59,375
아프리카	72	206	71	30	3	310	15	397
오세아니아	47	64	9	9	11	93	38	178
북미	515	776	49	96	86	1,007	643	2,165
남미	78	130	29	11	7	177	23	278
유럽	545	390	83	18	40	531	483	1,559
합 계	19,521	27,399	7,390	3,287	2,509	40,585	3,846	63,952

주요 국가별 유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이 44,746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일본 3,324명, 그다음이 미국으로 1,481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출신 국가별로 외국인 유학생의 비율을 보면 일본 5.2%, 몽골 3.2%, 베트남 2.8%, 미국 2.3%, 대만 1.8%에 비해 중국의 유학생의 비율은 전체 유학생에 70%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2-4〉 출신 국가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단위 : 명)

유학 국가	중국	일본	몽골	베트남	미국	대만	말레이 시아	러시아	인도	네팔	기타	계
인원 (명)	44,746	3,324	2,022	1,817	1,481	1,158	501	480	449	314	7,660	63,952

#### 4) 유학형태별 현황

유학형태는 자비유학생, 정부초청장학생, 대학초청장학생, 자국정부 파견 장학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 대학으로 유학 올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유학형태는 바로 자비유학이다. 자비로 유학을 오는 학생들의 증가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반면 정부초청장학생이나 대학초청, 자국 정부 파견 장학생의 비중은 약함을 나타내 주고 있다.

〈표 2-5〉 유학 형태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2008년 4월 1일 기준)

(단위 : 명)

유학형태	2005년	2006년	증감	2007년	증감	2008년	증감
자비유학생	17,599	26,342	8,743	42,273	15,931	54,934	12,661
정부초청장학생	388	614	226	581	-33	837	256
대학초청장학생	2,873	3,892	1,019	3,706	-186	5,010	1,304
자국정부파견 장학생	309	465	156	511	46	587	76
기타	1,357	1,244	113	2,199	955	2,584	385
합계	22,526	32,557	10,031	49,270	16,713	63,952	14,682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2008). 2008년도 교육통계분석 자료집

#### 5) 지역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지역별로 외국인 유학생의 현황을 보면 2001년 전체 11,646명 중 서울지역이 8,395명으로 72.1%에 달하여 제일 많은 외국인 유학생 수를 가지고 있었으며, 충남지역은 627명으로 5.4%이었다. 그러나 2007년도에는 서울지역이 17,569명으로 35.8%를 차지하고, 충남지

역은 3,235명으로 6.6%에 달하여, 전국적으로 볼 때 4번째로 많은 외국인 유학생이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충남지역 거주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 대학 뿐 만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표 2-6〉 지역별 외국인 유학생 분포\*

단위 : 명(%)

지역	2001년	2004년	2007년
서울	8,395 (72.1)	7,898 (46.9)	17,659 (35.8)
부산	449 (3.9)	1,119 (6.6)	3,264 (6.6)
대구	159 (1.4)	591 (3.5)	1,793 (3.6)
대전	317 (2.7)	831 (4.9)	2,757 (5.6)
인천	139 (1.2)	233 (1.4)	1,018 (2.1)
광주	113 (1.0)	433 (2.6)	1,603 (3.3)
울산	238 (2.0)	28 (0.2)	184 (0.4)
강원	129 (1.1)	556 (3.3)	2,064 (4.2)
경기	240 (2.1)	943 (5.6)	2,369 (4.8)
충북	132 (1.1)	345 (2.0)	2,530 (5.1)
충남	627 (5.4)	1,201 (7.1)	3,235 (6.6)
전북	226 (1.9)	608 (3.6)	2,381 (4.8)
전남	178 (1.5)	544 (3.2)	1,082 (2.2)
경북	163 (1.4)	1,104 (6.6)	5,013 (10.2)
경남	105 (0.9)	305 (1.8)	1,880 (3.8)
제주	36 (0.3)	93 (0.6)	438 (0.9)
총계	11,646 (100.0)	16,832 (100.0)	49,270 (100.0)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각 년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보도자료

주\* : 교육인적자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는 외국인 유학생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소가 아닌 유학생이 등록 되어있는 대학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유학생이 속해있는 대학의 주소를 조사한 후 유학생의 국내 공간적 분포현황을 파악하였다.

## 6) 충남지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현황

충남지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보면 총 3,985명으로 학부를 다니는 유학생이 2,385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어학연수 950명, 석 박사과정이 446명 순으로 나타난다.

대학별 유학생 수는 전문대학교가 988명으로 가장 많은 유학생이 학업을 하고 있으며, 순천향대학교가 578명, 건양대 491명, 공주대가 403명, 호서대학교가 338명, 한서대 318명, 한국기술대학교가 90명, 나사렛 대학교 58명, 금강대 39명, 백석대 34명, 중부대 10명 등이다. 2년제 대학 중에서는 공주 영상대학이 401명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신성대학으로 97명의 유학생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지역별 외국인 유학생 수는 아산이 총 1,904명으로 제일 많으며, 공주가 총 804명, 논산이 총 530명, 천안이 총 422명, 서산이 318명, 당진이 97명, 금산이 10명의 순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이 많이 거주하는 아산, 공주, 천안, 서산 등 지역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거주로 인한 지역의 활성화 및 문제점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야 하며, 더 많은 외국인 유학생의 유입에 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표 2-7〉 충남지역 대학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단위 : 명)

충남지역	학교명	어학연수	학부생	석, 박사 학생	기타	외국인 학생 총합
공주시 (804)	공주대	175	150	70	8	403
	공주영상대학	122	279			401
천안시 (322)	나사렛대		39	14	5	58
	남서울대	89	51			140
	백석대		2	15	17	34
	한국기술대	17	35	28	10	90
아산시 (1,904)	전문대	350	516	107	15	988
	순천향대	96	349	33	100	578
	호서대	37	209	92		338
논산시(530)	건양대		471	15	5	491
	금강대	16	7	1	15	39
서산시(318)	한서대	35	193	61	29	318
금산군(10)	중부대			10		10
당진군(97)	신성대학	13	84			97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2008)자료를 충남에 속한 지역별로 재구성

\* 충남에 분교를 둔 대학은 제외하였음

### 3. 소결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 유학생들의 현황을 보면 국제화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아시아 계열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8년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63,952명으로 유학생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데, 이 중 아시아 계열의 유학생의 수가 59,375명으로 전체 유학생 대비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중에서도 중국 유학생들의 비중은 아시아 계열에서 가장 많은 44,746명으로 전체 유학생 대비 70%에 가깝다. 이러한 대륙간의 불균형 경향은 국제화와 국제간의 다양한 교류를 위해서는 극복해야할 과제일 것이다. 또한 자비 유학생들의 수는 2006년에 비해 2007년에는 8,743명, 2007년에 비해 2008년에는 1,5931명 등 자비로 오는 유학생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정부 장학생과 대학초청 장학생의 비중은 미비함을 볼 수 있다. 전체 외국인 유학생 수 중 충남지역은 2001년 5.4%, 2004년 7.1%, 2007년 6.6% 등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이 필요하다.

충남에 속한 대학별 유학생 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별 유학생의 수도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선문대가 988명, 순천향대가 578명, 건양대가 491명, 공주대가 403명 등의 순으로 학생수가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적은 대학은 중부대, 백석대, 금강대 등이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 수가 많은 지역은 아산이 제일 높으며, 공주, 논산, 천안, 서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제3장 외국인 유학생 지원 정책

### 1. 중앙정부의 지원 정책

정부는 2012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1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는 Study Korea Project 발전방안이 발표에 따르면, 아시아 우수학생을 집중 유치하기 위해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이 2007년도 연간 581명에서 2008년도에는 1500명으로, 2010년에는 2,450명, 2012년에는 3,000명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외국정부와의 교육 교류 약정체결 등을 통해 외국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자율화 하도록 하며, 대학간 학생교류 확대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해외입양아, 한국어 전공자 등 잠재적 한국 유학생의 유치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 수학,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영어전용강좌 및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2008년 이후 매년 2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며, 주요 거점 지역별 공동 기숙사 건립 유도 등 기숙사 수용을 제고하고, 문화, 생활적응지원, 1인 1보험가입 등 의료혜택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대학-기업이 긴밀히 연계해 대학-기업연계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초청 장학생에게 인턴십 기회를 확대하고 졸업 후 채용을 적극 검토하며 국내에서 수학한 외국인 유학생의 귀국 후 정보의 체계적 관리 등 국외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 1) 정부 초청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

1967년도부터 실시되어온 이 사업은 매년 전 세계 100여 개국의 우수한 외국인 학생을 초청 국내 대학에서 1년간 한국어 연수과정을 거쳐 학부 및 대학원과정의 등록금 및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선발의 목적은 외국인 학생에게 대한민국 고등교육기관에서 수학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제교육교류 촉진 및 국가 간 우호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표 3-1〉 정부초청 외국인 유학생 현황

연도(년)	67~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계
초청인원(명)	291	26	44	54	70	45	77	73	46	52	53	70	70	103	1,074
초청국가(개국)	67	18	24	26	29	21	31	30	19	23	23	38	29	46	424

출처 : 교육부(2007). 국제교육지원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 결과보고서

한국정부에서 외국인 유학생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의 종류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제교육진흥원에서 주는 Korean Government Scholarship Program for Graduate Course(한국정부초청외국인 대학원장학금)가 있다. 이는 문화협정체결국가 위주로 석사과정2년, 박사과정 3년, 연구과정과 한국어 연수과정에 6개월에서 1년 동안 대학등록금과 생활비, 그리고 연구비를 주는데 대상인원은 660명이다. 또한 Korean Government Scholarship Program for Undergraduate Course(한국정부초청외국인학부장학금)라 하여 EDCF 수원국과 OECD DAC 수원국가 학부생에게 전공제한 없이 학부과정은 4년, 한국어 연수는 1년 동안, 대학등록금과 생활비, 그리고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주는데 200명을 대상인원으로 한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경우 Research Fellowships for International Graduate Student Program(해외우수학생연구원초청연수지원사업)이라 하여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과학기술분야에서 석사과정은 2년 동안 월 70만원, 박사과정은 3년 동안 월 90만원의 장학금 혜택을 1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서는 Korean Government IT Scholarship Program(정보통신부IT장학금)과 Global IT Policy & Technology Scholarship(외국인 국내 IT 정책 및 기술 전문가 과정 장학금)이 있다. Korean Government IT Scholarship Program의 경우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며, 분야는 IT분야로 장학금 액수는 석사과정 2년 동안 년 1000만원을, 박사과정 4년 동안 년 1400만원이며 대상인원은 130명에서 180명 수준이다. Global IT Policy & Technology Scholarship은 아시아태평양지역, 중동지역 등의 정보통신 공무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며 대상인원은 정책과정 15명, 기술과정 25명으로 이들에게는 박사과정은 3년 동안 석사과정에서는 2년 동안 대학등록금과 생활비 월 150만원을 비롯한 항공료와 의료보험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의 장학금은 인문, 사회과학분야에서 전세계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석사과정은 최대 2년, 박사과정은 최대 3년 동안 대학등록금을 제공하는 Graduate Studies Fellowship for Foreign Students in Korea(한국전공대학원생장학제도)가 있고 또 하나는 70에서 80명의 인원에게 한국어 연수를 하는 6개월에서 1년 동안 체재비 월 90~110만원과 입국지원금 30만원, 그리고 연수기관 등록금과 여행자 보험을 제공하는 Korean Language Training Fellowship(한국인연수장학금) 등이 있다.

〈표 3-2〉 한국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 장학금 종류 및 내용

추진기관	명칭	대상	분야	과정 및 기간	내용	인원
국제교육 진흥원	Korean Government Scholarship Program for Graduate Course	문화협정 체결 국가위주 (기타국가 일부 포함)	전공제한 없음	석사과정2년 박사과정3년 연구과정 6개월-1년 한국어연수 6개월-1년(6개 월 별도지원)	대학등록금, 생활비 (월90만원) 연구비	660명
국제교육 진흥원	Korean Government Scholarship Program for Undergraduate Course	EDCF수원국 및 OECD DAC수원국가 학부생	전공제한 없음	학부과정4년 한국어연수1년 별도지원	대학등록금 생활비 (월80만원) 의료보험	200명
한국학술 진흥재단	Research Fellowships for International Graduate Student Program	전세계 모든 국가	과학기술 분야	석사과정2년 박사과정3년	석사과정 (월 70만원) 박사과정 (월90 만원)	100명
정보통신 연구진흥원	Korean Government IT Scholarship Program	전세계 모든 국가	IT분야	석사과정2년 박사과정4년	석사과정 (년1000만원) 박사과정 (년1400만원)	130~180명

정보통신 연구진흥원	Global IT Policy & Technology Scholarship	아시아태평양, 중동지역 등의 정보통신 공무원 및 전문가	국제IT 분야	석사과정2년 박사과정3년	대학등록금 생활비 (월150만원) 항공료 의료보험 지원	정책과정 15명 기술과정 25명
한국예술 종합학교	Art Major Asian Scholarship	아시아각국의 우수 예술인력	예술분야	학부4년 대학원2~3년	학부, 대학원 (년1800만원)	20명
한국국제 교류재단	Graduate Studies Fellowship for Foreign Students in Korea	전세계 모든 국가	인문, 사회과학 분야	석사과정 최대 2년 박사과정 최대 3년	대학등록금	
한국국제 교류재단	Korean Language Training Fellowship	전세계 모든 국가	한국어 연수	6개월 ~ 1년	체재비 월90~110만원 입국지원금 30만원 연수기관 등록금 여행자보험	70~80명

출처 : 2008-2009년 한국유학정보자료를 도표화한 것

## 2)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프랑스가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프랑스어 강의만을 고집하던 것을 벗어 던지고 소르본대학은 해외 캠퍼스를 설치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영내 대학의 80% 가량이 해외 마케팅과 관련한 인력 충원 계획을 세워 예산을 늘리고 있다. 영국은 2011년까지 외국 유학생 10만명을 대학에 유치하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한경매거진, 2007년 12-628월호). 호주는 정부가 교육기관의 해외 마케팅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호주 정부는 이달부터 350만 호주달러(약 33억원)의 예산을 들여 인도,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에서 대대적인 유학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캐나다는 **외국인**을 자국 학교로 끌어오기 위해 유학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예컨대 한국 학생 한 명이 유학원을 통해 캐나다 학교에 입학하면 이 유학원에 수수료를 10%까지 주는 식이다

(머니투데이, 2009-4-1). 이와 같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각국의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 정부도 직접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유학박람회 개최와 유학안내시스템 관리 및 홍보강화 등 유학생 유치기반을 확충하고 있다.

유학박람회의 경우 한국으로의 유학 수요가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현지에서 국내 대학의 유학설명과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이미지 제고와 유학수지 적자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유학박람회의 기본방향은 첫째, 외국인 유학생 적극 유치를 위한 3단계 지역으로 분류하여 전략지역 중심의 박람회를 개최 또는 참가하며 개최 지역을 다변화하고 외국정부 장학생 유치지역중심으로 개최한다. 둘째, 지역별 Alumni Network을 구축한다. 셋째, 유학박람회 활성화를 위해 타 부처 및 대학협의체와 공조 체제를 강화한다. 넷째, 박람회 홍보 강화 및 한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한다. 다섯째, 국가 및 도시별 홍보 전략을 수립 여섯째, 책임 운영기관 성과목표 달성 전략 등이다.

2004년도 6개국 8개 도시를 대상으로 54개 대학이 참여 했으나, 2007년도에는 7개국 11개 도시를 대상으로 176개 대학이 참여하였고 2008년에는 7개국 11개 216개 대학이 참가 하였으며, 2009년에는 6개국 7개 도시에서 개최하였다.

〈표 3-3〉 2008년 유학박람회 개최 현황

국가	지역	행사기간	참가형태	방문객	참가대학
몽골	울란바토르	4월 26~27일	단독개최	6900명	27대학
터기	앙카라 카이세리	5월 2일 5월 5일	단독개최	4470명	22대학
미국	워싱턴DC	5월 26~30일	공동참가	약15000명	19대학
					15대학
중국	난닝 광저우	6월 28일 6월 29일	공동참가	약1600명	22대학
일본	동경	9월 27~28일	단독개최	약700명	27대학
중국	북경	10월 18~19일	공동참가	약 1500명	31대학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11월 7~8일	단독개최	약200명	15대학
베트남	호치민	12월 6~7일	단독개최	약2300명	38대학
총 계					216대학

출처 : 국립국제교육원(2008) 유학박람회 실적

인터넷을 이용하여 유학안내시스템은 보다 쉽고 빠르게 한국 유학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study in korea란 사이트를 통해 몽골, 스페인, 영어, 터키어 등 10개 국어로 유학에 관한 정보와 한국 대학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표 3-4〉 유학안내시스템 접속현황 (2006. 12. 31 기준)

연도\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몽골어	계
2005년	23,947	60,741	15,537	11,521	10,496	11,862	2,305	136,409
2006년	29,997	79,715	34,998	15,361	11,849	15,278	11,644	198,842

출처 : 최정순(2007). 해외인적자원 유치확대 및 활용을 위한 유학생 지원 전담기구 설립방안 연구

### 3) 기타 유학생 지원제도

산업자원부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취업 규정에 의거하여, IT, 기업정보화(e-business), BT, NT, 신소재, 수송기계, 디지털 전자, 환경, 에너지 분야를 전공한 졸업생에 한하여 한국에 거주하면서 취업을 할 수 있게 비자를 변경하여 주는 골드카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취업과 관련하여서는 출입국 관리법에 의거하여 전문, 기술 외국인력은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홍행(E-6),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국내취업이 가능하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정규학위 과정에 유학중인 유학생으로 유학(D-2)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 등에 재학 중인 자로서 6개월(1학기) 이상의 수학과정을 마친 외국인은 법무부의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 규정에 의거 학기 중에는 주당 20시간까지, 방학 중에는 제한없이 자유롭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4) 정부 지원 정책의 문제점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을 지원하는 장학금의 경우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급격히 증가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율에 비해 그 수는 상당히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최근 들어 국제 경쟁력의 강화의 흐름 속에서 고급인력의 유치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 유학생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요건 즉, 장학금의 액수가 유학 대상국을 선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실적인 불가수준을 반영한 생활비와 장학금의 인상과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유학박람회의 경우 기본방향에서 제시하듯 그 개최국가가 아시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화와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개최국의 다양화할 필요가 요구되며 유학 홍보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에서 유학과 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비공식적 유학원이나 유학관련 단체로 부터의 높은 유학비용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유학안내 시스템의 경우 보다 원활한 홍보를 위해서는 유학관련 자료를 최신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며 나아가 상세한 정보제공이 요구된다. 또한 안내시스템의 이용률을 높이는 정보에 대한 단순한 연결 수준이 아니라 변화되는 지원 정책이나 대학별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소개함으로 외국인 유학생에게 보다 나은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 2. 충남지역 외국인 유학생 지원 정책

### 1) 충청남도 지자체의 지원 정책

충청남도에서는 충남의 발전상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해 2009년 11월에 “知 충남 우호인사” 육성의 일환으로 충남지역에 있는 대학의 외국인을 선발하여 1박 2일간 투어를 하였다. 투어 내용은 충청남도정 설명, 도내 산업현장 방문, 유명 관광지 방문 등으로 숙박비, 식비, 간식비 등이 전액무료이었다.

위와 같이 충청남도 지자체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지원 정책은 아직 미흡한 편이며, 일회성 관광 및 방문으로 한정되어 있다.

### 2) 충남지역 대학별 지원 정책

#### (1) 충남 지역 대학별 장학금 지원 정책

##### ① 선문대학교

선문대학교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성적이 좋은 상위 3명에게는 2년간 등록금을 전액면제해 주고 있으며 외국인 특례입학 장학금으로 아시아나 중동, 아프리카, 동유럽, 남미 출신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시 등록금 50%를 면제해주며 매학기 18학점이상 취득자는 계속해서 등록금 50%를 면제해 주고 있다. 대학원의 경우엔 전일제 학생의 경우 70%를 시간제 학생의 경우 50%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표 3-5〉 선문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안내

구분	장학금명	수혜내역
외국인 우수입학장학금	입학성적 상위 3명	2년간 등록금 전액면제
외국인 특례입학장학금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동유럽, 남미 출신 학생전원	입학시 등록금 50%면제 매학기 18학점이상 취득자는 계속해서 등록금 50%면제
대학원	전일제 학생 70%, 시간제 학생은 50%의 장학금 지급	

출처: 국제교육진흥원(2008~2009). 한국유학정보

## ② 건양대학교

건양대학교의 경우 신입생 및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추천자 전원에게 학비 50%를 감면하고 있으며, 한국어 과정 성적 최우수 유학생과 성적 향상 장학금을 한국어 과정 성적이 기준 이상인 유학생에게는 학비 50%감면과 소정의 학비 감면을 해주고 있다. 또한 유학생회 장학금으로 유학생 임원진에게 월 약 15만원 ~ 20만원 지급하고 있다.

〈표 3-6〉 건양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안내

구분	대상	선발인원	수혜내역
외국인유학생 장학금	신입생 및 재학 중 인 외국인 유학생	추천자 전원	학비 50%감면
성적우수 장학금	한국어과정 성적 최우수 유학생	반별 1명	학비 50%감면 + 소정의 학비 감면
성적향상 장학금	한국어과정 성적	기준이상인자	학비 50%감면 + 소정의 학비 감면
유학생회 장학금	유학생임원 장학금	유학생 임원	월 약 15만원 ~20만원

출처: 국제교육진흥원, 2008~2009 한국유학정보

## ③ 공주대학교

공주대학교는 신입생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면제하고 있으며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이 B+ 인 경우 수업료 전액을 면제해 주고 있다. 또한 성취 장학금이라 하여 한국어 능력시험에서 4급 이상 받았을 경우 재학 중 1번에 한하여 기성회비 반액을 면제해 주고 있다. 대학원생 역시 신입생의 경우 입학성적과 관계없이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기성회비 반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이 4.0 이상인 자로 한국어 능력시험의 S토

픽 5급(고급) 이상에 합격한 자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3.5이상인 자로 한국어 능력시험의 S토픽 3급(중급) 이상에 합격한 자에게 기성회비 반액을 지급하며 직전학기 성적이 3.5이상인 자로 학과의 추천을 받는 자에게는 수업료 전액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웅진장학생이라 하여 공주대학교와 웅진그룹의 산학협력을 통하여 아시아 지역의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향후 관계국과의 우호 협력 관계를 증진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선발인원은 9명이며 선발국가는 베트남, 캄보디아로 대학원 석사과정을 선발하고 있다. 선발자에게는 석사과정(최대 2년)기간 중 납입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받으며 왕복항공료와 유학생 보험, 한국어 강좌, 한국 문화체험, 재학중 학생생활관에 우선 배정하여 입사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고 매월 30만원의 체재비가 지원된다.

〈표 3-7〉 공주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안내

구분	장학금명	대상	수혜내역
학부생	공주대학교 재학 중인 동남아 출신 외국인 학생 성취장학금	신입생 재학생 한국어능력시험4급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면제 전학기 B+이상 수업료면제 기성회비 1번 반액 면제
대학원생	공주대학교 재학 중인 동남아 출신 외국인 대학생	신입생 재학생	입학금, 수업료전액, 기성회비 전학기 성적 4.0이상인 자로 S토픽 5급이상 -등록금 전액 전학기 성적 3.5이상인 자로 S토픽 3급이상 -기성회비 반액 전학기 성적 3.5이상인 자로 학과 추천 받은자 -수업료 전액
웅진장학생	우수 외국인 신입생	연간 9여명	왕복 항공료, 유학생보험, 문화체험, 한국어 강좌 매월 30만원 생활비 지급

#### ④ 한서대학교

한서대학교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인 장학금A와 외국인 장학금B, 그리고 국제 청소년 적십자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외국인 장학금A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으로 자매교의 관계 규정에 의거하여 상호 호혜원칙에 의해 선정된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외국인 장학금B의 경우에는 외국인 유학생으로 총장이 인정한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1학기 장학금을 제공하며 국제 적십자사로부터 추천된 자로 총장이 인정한 유학생에게 입학금 및 등록금을 전액 감면해 주고 있다.

또한 교환학생의 경우 자매결연대학에서의 유학생은 등록금을 유학생 국가 본교에 납부하는 대신 한서대학교 등록금이 면제되며 어학연수원에서 한국어 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표 3-8〉 한서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안내

구분	대상	수혜내역	비고
외국인장학금A	외국인 유학생으로 자매교 관계규정에 의거 상호 호혜원칙에 의해 선정된 자	자매교 규정에 의함	기숙사 제공가능
외국인장학금B	외국 유학생으로 총장이 인정한 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1개 학기	
국제청소년 적십자 장학생	국제(대한)적십자사로부터 추천된 자로 총장이 인정하는 유학생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기숙사 제공

출처: 국제교육진흥원(2008~2009). 한국유학정보

#### ⑤ 호서대학교

호서대학교는 성적우수학생 중 학부장추천 받은 외국인 학생 중 선발하여 총장A, 총장B, 총장C, 총장D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총장A에 해당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학비와 생활관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총장B의 경우 학비를, 총장C의 경우엔 생활관비, 그리고 총장D의 경우 근로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특별장학금이라 하여 개발도상국 출신 학생 전원에게 학비를 40~50% 감면하고 있다.

〈표 3-9〉 호서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안내

장학금명	선발대상	선발인원	수혜내역
총장A	성적우수학생 중 학부장 추천자- 외국인 학생 중 선발	00명	학비 + 생활관비
총장B		00명	학비
총장C		00명	생활관비
총장D		00명	근로장학금
외국인특별장학금	개발도상국 출신 학생 전원	해당외국인 전원	학비 40~50%
신청방법	각 학과별로 학부장 추천받은 자		

출처: 국제교육진흥원, 2008~2009 한국유학정보

#### ⑥ 공주영상대학

공주영상대학은 장학금제도는 성적 우수 장학금, 근로 장학금, 외국인 특별장학금, 사도 장학금등이다. 성적 우수 장학금은 성적 우수자에게 학비의 20~50%를 감면하고 있으며 근로 장학금은 과 사도 장학금은 재학생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한다. 외국인 특별장학금의 경우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일정 인원에게 20%를 감면 해 주고 있다.



〈표 3-10〉 공주영상대학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안내

장학금명	선발대상	선발인원	수혜내역
성적 우수 장학금	성적 우수자	일정인원	학비의 20% ~ 50%
근로장학금	본교 재학생	일정인원	일정금액
외국인 특별장학금	외국인 유학생	일정인원	20% 감면
사도장학금	본교 재학생	일정인원	일정금액
기타 장학 외 다수	본교 재학생	일정인원	학비의 20% ~ 50%

출처: 국제교육진흥원, 2008~2009 한국유학정보

## (2) 대학별 외국인 유학생 교육 지원 프로그램

외국인 유학생이 유학생회에 쉽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어를 우선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각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적응을 위해 한국어 연수 과정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다.

〈표 3-11〉 충남지역 4년제 대학별 한국어 교육과정 프로그램

학교명	교육과정	교육기간	교육내용	비용	비고
건양대학교	정규과정 단기연수과정 교사양성과정 이주여성 교실	15주 과정 3-8주 15주, 3-4주 3-6월, 9-12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초급~고급)		정규과정은 교양학점으로 인정
공주대학교	한국어 과정	30주	초급, 중급, 고급반	년 \$3,780	
선문대학교	정규과정 계절과정	16주 6주		학기\$2,581 (기숙사비포함)	
순천향대학교	쿼터별 (년4쿼터)	쿼터별10주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실용한국어, 문화체험, 태권도	쿼터별 90만원 년 360만원	
한서대학교	한국어과정	4주, 16주, 32주		16주 200만원 기숙사비, 제반수수료 별도	
호서대학교	한국어 과정	1년 ~ 1년반		1년 \$3,600	

출처 : 관련대학 인터넷사이트

선문대학교는 1989년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한 한국어 교육원을 개원하여 한국어 연수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99개국 4,872명의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학습기간은 정규과정은 16주, 계절과정은 6주이며 수업료는 기숙사비를 포함해 1학기에 2,581달러이다.

건양대학교의 한국어 교육과정은 정규과정, 단기 연수과정, 한국어 교사 양성과정, 이주 여성 한국어 교실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정규과정은 학기당 15주 과정으로 초급에서 고급 단계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초급은 발음연습, 문형연습, 쓰기연습의 과정으로 중, 고급은 연극을 통한 한국어 교육, 노래로 배우는 한국어, 시사와 스크린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정규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정규학부 교양학점으로 인정하고 있다. 단기 연수과정은 3~8주로 하계(6월~8월)와 동계(12월~2월)로 구분하여 기초 생활 회화 및 한국문화를 교육하고 있고, 한국어 교사 양성과정은 학기 중은 15주 과정, 방학 중에는 3~4주 과정으로 한국어 교사 자격을 구비하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사업으로 이주 여성 한국어 교실도 운영되고 있다.

공주대학교는 언어 교육원을 2004년부터 중국인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초급, 중급, 고급반으로 구성하여 매학기 150여명의 중국인 유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학습기간은 30주며 교육경비는 1년 3,780달러이다.

한서대학교는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연수과정을 4주, 16주, 32주로 진행하고 있으며, 1학기 16주의 경우 수업료는 200만원이다.

호서대학교는 고등학교 졸업이상 또는 동등한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학습기간이 1년에서 1년 반으로 하는 한국어 연수과정은 진행하고 있다. 수업료는 1년(2학기)을 기준으로 3,600달러다.

공주영상대는 타 대학과 달리 6개월 동안 하루 6시간의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이는 좀 더 빠른 기간 내에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반편성은 초급~중급, 중급~고급 등 2개의 반으로 운영되며 한 개의 반에 15명 정도이다.

### (3) 기타 외국인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

#### ① 선문대학교의 Global school 프로그램

해외 유학생들의 한국어와 전공 학습 지원하며 Writing center(레포트 교정)와 문화교류 지원 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습코치 자격은 해외 유학생들의 한국어, 전공과목 및 레포트 교정을 도와주고 싶은 2,3,4학년 학생으로 성적 평점 3.0 이상, 외국어 가능자에게는 가산점을 준다. 학습코치에게는 한 학기 사회봉사교과목 2학점 인정되며 (단, 이번학기 학습코치 모집기간 중 신청한 사람만 가능) G-school에서 시행하는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은 봉

사40시간에 포함되고 사회봉사 교과목 신청 하지 않는 사람은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가능하다. 이러한 학습코치를 선발하는 과정과 일정은 다음과 같다.

〈표 3-12〉 선문대학교 한국어 학습코치

전 형	필요서류	모집 기한	접수처
1차 서류 접수	신청서 성적 증명서 (확인용) 신청과목 학습 계획서	6월8일(월)~ 18일(목) 오후6시까지	유학생 교육원
2차 면접	신청과목 학습계획서(보완) 제출	6월18일(목) ~ 19일(금) 시간추후 개인별 공지	

〈표 3-13〉 선문대학교 Writing center 학습코치

전 형	필요 서류	모집 기한	접수처
1차 서류 접수	신청서 성적 증명서 (확인용)	6월8일(월) ~ 18일(목) 오후6시까지	유학생 교육원
2차 면접	*	6월18일(목)~19일(금) 시간추후 개인별 공지	

〈표 3-14〉 선문대학교 학습코치 교육

교육명	교육대상 대상	예정 일정	장 소
학습 코칭 (자기주도 학습법)	전공/한국어 /Writing center 학습코치 (공통교육)	미정 (2009년 2학기 초 실행)	글로벌 라운지
한국어 교수법	전공/한국어 학습코치		
글쓰기 작성법	Writing center 학습코치		

## ② 선문 peer 튜터링 프로그램

1명의 튜터와 6명 내외의 튜티가 그룹을 형성하여 일정시간의 자율적인 협동 학습을 통해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학습 공동체 프로그램으로 튜터는 가르치는 사람이고 튜티는 배우는 사람을 말한다. 특전으로는 소정의 장학금지급하고 사회봉사학점 취득 가능(1학기)하며 공식 활동 시 공결 처리되고 활동 우수자에게 총장 명의의 인증서를 발급받는다.

〈표 3-15〉 선문 peer 튜터링 프로그램

트랙		과목명	모집인원
track 1	교양	교양글쓰기	6
		영어독해1	6
		중국어1	6
		토익문법	6
		한국어	6
track 2	전공핵심 교양교과목, 전공1교과목	일본어언어실습2	6
		중국어	6
		아랍어	6
		러시아 언어와 문화교육	6
		초급스페인어문법1	6
		현대사회와 매스미디어	6
		초급일본어회화1	6
		일반화학1	6
		일반수학	6
		경영과정정보기술	6
		디지털경영이해	6
		경영과정정보기술	6
		디지털경영이해	6
track 3	공학교육혁신센터	공학인증참여학과 학생대상,전공과목 (각 학과에서 별도 모집)	60

### ③ 공주대학교 Fellowship향상 프로그램

외국인 학생과 한국 학생간의 상호 문화교류 및 체험(문화 유적지 탐방)을 통하여 연대감 및 협동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 후에도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통해 상호 언어 능력 향상, 외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

선발인원은 20팀으로 1팀당 한국학생과 외국학생 3명으로 구성되며 팀별 주제를 선정하여 그에 맞는 탐방 일정 및 계획을 작성하며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은 팀별 자체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지원 자격은 학부학생(외국인 교환학생 포함)이며 각 팀당 지원금은 30만원이다.

### ④ 공주대학교 외국인 학생지원단

모국어 사용자로 구성된 외국인 학생 지원단을 선발하여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에게 출입국 및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비자, 출입국관련 정보

제공 및 서류작성을 지원하며 수강신청 및 학사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통역 및 편의 생활 정보를 제공한다. 지원 자격으로는 한국어가 능통한 외국인 학부생 2~3 학년이며 지원단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월 30만원이다.

#### ⑤ 공주대학교 Partnering program

한국어가 서툴러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유학생과 이들의 한국어 학습 및 생활을 도와줄 한국인 학생을 학생생활관 룸메이트로 연결시켜주는 외국인 생활관생 지원 프로그램이다. 대상은 하계방학동안 생활관 장기이용 입실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재학생 중 상호 룸메이트를 통해 한국어(외국어) 학습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로 신청을 받아 선발되면 1인당 20만원의 장학금이 지원된다.

#### ⑥ 공주대학교 Being One Program

외국인 학생과 한국 학생이 함께 어울려 전통문화를 소개하고 장기자랑을 하는 등 관객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이다.

#### ⑦ 공주대학교 한국어 능력 Level-up 프로그램

외국인 신·편입생의 수학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한국어 레벨테스트를 거쳐 수준별 한국어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이다.

#### ⑧ 공주대학교 홈스테이 프로그램

추석명절을 중심으로 한국학생의 가정이 외국인 학생을 집으로 초청하여 한국 풍습과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1박 2일에 지원금 100,000원 정도이다.

#### ⑨ 공주대학교 그룹별 다문화 체험 프로그램

외국인 학생과 한국 학생이 상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 (4) 문제점

지역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함에 있어 외국의 고급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방안의 모색보다는 부족한 대학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받음으

로 유치활동에 대한 노력에 비해 한국 적응 프로그램이나 외국인 유학생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미흡하다. 한국어의 활용도를 감안할 때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무엇보다 영어와 같은 외국어 전용강좌가 필요하다. 그러나 충청남도 내 대학을 볼 때 외국어 전용강좌를 실시하는 학교는 매우 부족하며 설령 외국어로 강좌를 개설한다 할지라도 그 강좌수가 많지 않다. 또한 대학에서 실시하는 각종 외국인을 위한 문화체험이나 대학적응을 위한 각종프로그램이 대학별로 실시되고 있으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시기가 주로 방학을 이용하여 실시되는 경우가 많고 프로그램도 대학의 연중행사와 같은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

### 3. 외국의 유학생 지원 정책

#### 1) 영국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

##### (1) 유학생 관련 현황

영국의 고등교육기관(Higher Education Institute)은 170개, 대학생 수는 230만 여명이며, 2008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수는 341,800명으로 이전 해 보다 15,800명이 증가하였으며, 4.6% 증가하였고, 전체 대학생 수의 14.8%를 차지한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외국인 유학생 수를 가지고 있는 영국은 중국 출신 유학생이 가장 많고 다음이 인도 출신이다.

##### (2) 영국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관한 입장

영국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재정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간주한다. 즉 자국 및 EU 출신 학생은 2008년 기준 연 £3,145의 대학 학사과정 학비를 지불하는 것에 비해, 타 지역 출신 학생들에게 3배 이상의 많은 학비를 부담한다. 영국 경제에서 고등교육 분야의 외국인 유학생의 가치는 £60억에 달하며 교육 분야 수출 총 가치는 £280억에 가깝다.

또한 재원 확보 이외에도 외국인 유학생이 지적 재산 축적과 그에 수반된 경제적 문화적 이익을 준다는 관점에서 중시되고 있다. 영국은 대학별 노력 이외에도 영국문화원 등을 통한 통합적 노력을 하며, 특히 아시아 출신 학생 유치를 위해 노력한다.

### (3) 유학생 유치 정책 PMI(Prime Minister Initiativ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 ① PMI 1

1999년부터 2005년에 시행된 본 제도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증진을 통한 국제 관계의 양성 및 정치, 경제 분야의 장기적 이익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 그 내용은 British Council에 의해 운영된 영국 교육 마케팅 캠페인에 대한 지원 및 투자를 하며,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입국 및 진행 절차 능률화 및 셰브닝 장학금(Chevening Scholarships) 수여자를 확대하는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 British Council의 주도하에 경쟁적인 세계 교육 시장에서 영국 교육의 마케팅 을 진행하며, 브랜드 홍보, 웹사이트 개발, 출판, 캠페인 시행, 유학알선업체(agents)와의 협력 활동을 하였다.

#### ② PMI 2

이는 2006년 4월 Blair 총리가 발표한 5개년 전략으로써, 외국 학생 유치 강조, 국제 시장에서 학생 유치를 성공적으로 계속하기 위한 교육의 질 향상, 파트너십 강화, 국가의 명성과 능력 배양 강조 등 이다.

유학생들이 유학할 국가를 먼저 결정하고 나중에 대학을 선정하는 경향이므로 강력한 국가 브랜드 인식 노력의 필요성 강조하며, 많은 유학알선업체(agents)와의 협력 체제 유지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비자발급절차, 만족할만한 학습제공 등을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 을 위한 질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 (4) 외국인 유학생 지원 기관 및 지원체제

- ① DIUS : PMI 2를 관장하고 Education UK Brand 소유하며 해당 프로젝트 별 예산 제공한다. 핵심 기관인 British Council 및 각종 정부 부처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업무를 추진한다.
- ② British Council : PMI 2 추진 핵심 본부로서 다양한 역할 수행을 한다. Education UK 웹사이트(<http://www.educationuk.org>)를 운영하여 학교 소개, 학교 및 학과 검색, 정보제공, 학자금 조달 방법 조언, 비자 신청 안내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교육제도 소개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 ③ UKCOSA 혹은 UKCISA(The UK Council for International Student Affairs) : 유학생 정보 제공과 정책 수립 보조 역할을 수행한다. 외국 학생과 (외국학생들을 접하

는) 교직원 또는 해외에서 수학하는 내국 학생들의 이익을 위한 영국 국가 조연 기구이다. 주 목적은 영국으로 또는 영국 밖으로 이동하는 국제학생들의 이동 촉진하고, 외국 또는 내국 학생 보조하며, 외국학생들과 교직원에게 최신 법규 (legislation, regulations) 외 각종 자료발간 및 회원에게 제공한다. 홈페이지에 Student Advice Pages 운영을 통해 비자, 학비, 생활 등 전반적인 정보 게재한다. 홈페이지는 멤버십으로 운영되며 2008년 3월 기준 188개의 대학, 62개의 Student's Union, 216개의 further education, 55개의 기타 기구 등 총 521개가 등록되어 있다.

- ④ 각 고등교육 기관(HE/FE) : 각 고등교육기관은 외국 유학생 담당 부서(The International Student Office Team)를 두어 기본 입학 정보부터 장학금 프로그램, 비자 및 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유학생을 지원한다. 외국 유학생을 위해 공항 환송 프로그램 및 졸업 후 관리 프로그램 등의 오리엔테이션 제공한다.

## (5) 외국인 유학생 지원 내용

### ① 정부 차원의 장학금(석사 이상)

- 셰브닝 장학사업(British Chevening Scholarships)은 영국 외무성(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에서 담당하며, 1983년부터 시작하여 왔으며, 2005~2006년에는 134개 국가에 2000여명의 학생에게 장학금 수여하였다.
- 영연방 장학금 사업(Commonwealth Scholarship and Fellowship Plan, CSFP) : 17개국 25,000명 이상의 영연방 국가 시민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영연방국가에 거주하는 25세 미만의 학사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다. 2005~2006년 예산은 총 £14,050,000이었으며, 수혜인원 1150명 이었다.
- 국제개발부(DFID) 장학사업(DFID(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Shared Scholarship Scheme) 은 1986년부터 개발도상국 학생 대상으로 설립되었으며, 35세 미만 영어 능통자, 정부나 국제기구에 소속되지 않은 자로 모국에 있는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않은 과정에 한해서 지원 가능하다. 2005~2006년까지 예산 £2,000,000, 수혜인원은 152명이었다.
- 해외 연구직 장학 사업(Overseas Research Students Awards Scheme: ORSAS)은 1979년 교육과학부 장관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모국과 영국 학비의 차액만큼을 지원



함으로서 우수 인재 유치하기 위함이다. Ph.D 과정을 지원하며, 2008년 예산 £15,000,000이며, 총 영국 거주 수여인원 1,875명, 165개 대학에서 수혜를 받았다.

- 왕립 협회 장학금(The Royal Society Fellowship)은 북미와 아시아 출신 연구원들을 위한 장학금으로써, 최고의 연구자를 초빙하여 영국 과학 연구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 스코틀랜드 국제장학금사업(Scottish International Scholarship Programme)은 우수한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석사과정으로 1년간 스코틀랜드 고등교육기관에서 수학, 과학, 기술 및 문화 예술 등을 전공한다. 2008년 수혜인원은 석사과정 22명 이었다.
- 마셜 장학금사업(Marshall Scholarships)은 외무성(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FCO)에서 자금지원을 하며, 1953년 마셜플랜(Marshall Plan)에 대한 감사표시 및 미국과 영국의 우호 증진을 위해 실시되었다. 석박사 과정 지원하며, 미국 국적자로 미국 대학에서 학사를 수여하고 졸업일이 지원 학기 시작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40명 내외로 한정한다. 2006~2007년 예산 £2,322,945, 수혜인원 44명이었다.
- 풀브라이트 장학금(Fulbright Scholarship)은 석·박사 및 연구 과정에 대한 지원을 하며, 미국 대졸자 대상으로 나이 제한이 없다.

## ② 대학별 장학 제도(학사 수준)

각 대학별로 장학제도가 있으며 구체적인 정보는 각 대학을 통해 알아봐야 한다. 캐나다, 홍콩,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영국에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자국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영국대학에 전달하고 있다.

- King's College : Canada Scholarships, Hong Kong Scholarships, KC Wong Scholarships, USA Scholarships, India Scholarships, Funding Opportunities for students from Norway 등이 있다.
- Oxford University : Dulverton Scholarships(유럽출신), Hill Foundation Scholarships(러시안), Noon/OCSKET Scholarships(파키스탄), Raffy Manoukian Scholarship(아르메니안), Oxford Students Scholarships(개발도상국 출신) 등이 있다.

## (6)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졸업 후 관리

### ① 취업지원

- 외국 유학생 학위 취득 후 체류 허용 비자(Post-Study Work visa)

2008년 6월 30일 시행되었고, 점수 기본 제도로 자격증, 영어능력, 재정능력 세 가지 기준에서 합당한 점수를 받는 경우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비자 획득 시 영국에 2년간 거주하며 구직, 취직 활동이 가능하며, 전공에 상관없이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모든 외국 유학생의 체류를 허용한다.

학업을 마치고 자국으로 돌아갈 필요 없이 영국 내에서 바로 비자 지원 가능한데, 이는 영국이 유학생 유치에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이며, 외국인 유학생 수 세계 2위를 계속 유지 확대하겠다는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배운 학문을 활용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킬 귀중한 직업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고용주에게는 기술인력 활용의 폭을 확대 제공하고, 이는 유학생 유치 전쟁에서 매우 유리한 제도적 장치이다.

- 인적네트워크 구성과 운영

각 교육기관 및 장학금 수여자 동문회(alumni)를 통해 외국 유학생 모임을 구성하고, 정보를 공유한다.

## 2) 미국의 외국인 인재 유치 정책

### (1) Fulbright 대학원 과정 장학금

학문적으로 우수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학생에게 미국대학에서 연구를 위한 학위과정 또는 비학위 연구과정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장차 모국에 돌아와 지원자 자신 및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며 학위과정 장학금은 석사 또는 박사과정을 목표로 미국대학에 등록하여 학위를 취득하려는 사람에게 수여된다. 베트남 국제 Fulbright 과학기술분야 박사과정 장학금은 과학기술분야에서 특별한 태도와 혁신을 증명해 보인 뛰어난 외국인 학생 약 25명에게 미국 상위권 대학 과학, 기술 및 공학 분야의 박사과정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 상위권 대학의 과학기술 또는 공학 분야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할 인도네시아 학생

을 선발하고 장학금 지원을 통하여 인도네시아와 미국 간의 상호이해를 촉진하는 것으로 인도네시아 국제 Fulbright 과학기술분야 박사과정 장학금이 있다.

또한 Fulbright 연구과학기술부 대학원과정 장학금은 뉴질랜드를 대상으로 하며 미국의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에서 뉴질랜드의 성장과 혁신을 뒷받침 하는데 기여할 분야를 연구할 유망한 학생을 지원하고 선발인원은 매년 12명이며 지원기간은 1년이다. 호주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Telstra Fulbright 기술 및 통신 분야 대학원과정 장학금은 기술 및 통신 분야에 관심이 있으며 상위 학위 취득을 위해 미국의 대학원에서 연구를 하고자 하거나 미국에서 상위 학위과정에 입학하는 것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석사과정을 대상으로 1년간 지원한다.

## (2) United States-South Pacific Scholarship Program

학사 및 석사과정 5명을 선발하여 최대 5년간 지원하는데 이는 남태평양 도서국가 출신의 학업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이 태평양 도서지역에서 직접적인 개발이 필요한 고등교육 분야를 미국대학에서 공부하여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표 3-16〉 미국의 외국인 유학생 장학 프로그램

구분	베트남 국제 Fulbright 장학금	인도네시아 Fulbright 장학금	뉴질랜드 Fulbright 장학금	호주 Telstra Fulbright 장학금	미-남태평양 장학금	베트남 교육재단 장학금
대상국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호주	남태평양도서국가	베트남
사업 내용	목적	우수한 S&E 분야 베트남학생 지원	학생교류를 통한 인도네시아-미국 간 상호이해 촉진	뉴질랜드의 성장과 혁신에 기여할 유망한 학생 지원	IT 분야에 기여할 헌신적인 학생 지원	남태평양도서지역의 개발이 필요한 분야에서 우수한 학생을 지원
	학위과정	박사과정	박사과정	석사, 박사과정	학사, 석사과정	석사, 박사과정
	선발인원	25명	25명	12명	5명	미국과 베트남 양국간 관계를 강화
	지원기간	3년		1년	최대 5년간	석사2년, 박사3년
지원 분야	S&E 분야	S&E 분야	S&E, IT분야	IT분야	S&E, IT분야, Business 분야	S&T분야
지원 내역	학비	지원	수업료 면제	AUD 4만 달러	지원	지원
	체재비	도서/장비구입비, 연구지원금		USD 2만 5천 달러	정착 지원금 지급	기숙사비, 식비, 잡비, 정착금
	항공료	포함	포함	포함	공식적 여행에 대한 왕복 항공운임 지급	정착 지원금 및 여행경비 지급
	기타지원	의료 및 상해보험		의료 및 상해보험		의료보험, 도서 및 장비구입비

출처: 정보통신연구진흥원(2006). 한국 유학정보

### 3) 일본의 외국인 인재 유치 정책

#### (1) JSPS RONPAKU program (일본학술진흥회 박사학위논문 장학제도)

아시아 국가의 박사과정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 중심지역으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학술진흥회가 매년 지도교수가 제출하는 보고서를 검토하여 차년도 장학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장학생의 연구 성과에 따라 최장 5년까지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 (2) ICF(International Communications Foundation) 프로그램

매년 10명의 석사과정생과 박사과정생을 선발하며 장학생들은 12개월 간 월 15만엔(USD 1,282.81)의 장학금 혜택이 주어지는데 정보통신분야의 연구 인프라 조성과 원조사업으로 인한 연구 성과를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외국 학생들의 일본 경험이 국제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문부과학성 국비연구유학생 장학금은 세계 각국과의 상호 이해 증진과 인적 네트워크 형성, 국제적 시야를 가진 일본인 학생 육성, 일본 국내 대학 등의 국제화, 국제 경쟁력의 강화 및 국제 사회에 대한 공헌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3-17〉 일본의 외국인 유학생 장학 프로그램

구분		일본학술진흥회 박사학위논문	ICF	문부과학성 국비연구 유학생 장학금
대상국가		아시아 국가	중국, 한국, 터키, 독일, 러시아 등 세계 각국	전세계 160개국
사업 내용	목적	친 일본 젊은 과학자 육성, 과학 기술 허브, 인적 네트워크 형성	사회에 공헌, 국제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촉진	상호 이해 증진과 인적 네트워크 형성, 자국 학생과 대학의 국제 경쟁력 향상
	학위과정	박사	석사,박사	석사,박사
	선발인원	연 30명	연 10명	연 4,000명
	지원기간	최장 5년	6 ~ 12개월	연구생은 24개월이나 18개월, 석사 및 박사 과정은 학위 기간 동안
지원분야		과학, 공학	통신 및 IT 분야의 법, 정책,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문과계, 이과계
지원 내 역	학비			등록비 면제
	체제비	월 \$2,914.40	월 \$1,282.81	매 월 \$1,491.89 1화: \$216,85
	항공료	왕복 항공료		
	기타지원	논문 준비, 출판비, 보험료		의료비 일부 지원, 기숙사비, 기숙사 알선

출처: 정보통신연구진흥원(2006). 한국유학정보

#### 4) 호주의 외국인 인재유치 정책

##### (1) 인디버 프로그램(The Endeavour Programme)

호주에서 국내외적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장학금 프로그램로 인디버 프로그램은 크게 Endeavour Study(인디버 학업), Endeavour Research(인디버 연구), Endeavour Professional(인디버 프로페셔널)로 구분된다.

〈표 3-18〉 호주의 외국인 유학생 장학 프로그램

구분		인디버국제대학원 연구장학금	인디버대학원 장학금	인디버 말레이아 장학금	인디버 터키 장학금	인디버 유럽 장학금	인디버 아시아 장학금
대상국가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한 모든 국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아시아 51개국	말레이시아	터키	유럽연합국가 25 개국, 노르웨이, 스위스, 크로아티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태국, 베트남
사업 내용	목적	국제협력 도모 및 연구 활성화	국제협력 도모 및 연구활동 장려	상호연구협력 증진			
	학위과정	석사, 박사과정					
	선발인원	매년 330명	매년 40명	3명	3명	최대 15명	최대 30명
	지원기간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3년	석박사과정 각각 최대 3년 6개월	해당년도 첫 1년			
지원분야		교육기관 및 지도교수와 합의된 모든 분야					
지원 내역	학비	등록비 전액	학기당 AUD10,000	지원없음			
	체제비		매월 AUD2,500	매월 AUD3,333			
	항공료		1회 AUD 5,000	최고 AUD5,000			
	기타지원	의무건강검진비용			정착비		

출처: 정보통신연구진흥원(2006) 한국유학정보

세부적으로 12개의 장학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Endeavour Study 프로그램은 학업을 원하는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Endeavour Research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세계 각 국가 출신의 일반 연구자들과 박사 후 연구과정생들로 하여금 호주에서 연구를 수행하게 함으

로써 호주와 해당 국가간의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개발하고 상호연구협력을 증진하며 두 국가간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4. 소결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정책이나 대학의 지원 프로그램은 아직도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의 정책과 대학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중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의 경우 인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으며 안정적 유학 생활을 위해 생활비도 9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제 물가 수준 및 물가 상승률이 높아 생활비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물론 초청인원 역시 한국으로의 유학을 희망하고 지원하는 유학생의 수에 비해 예산 관계상 초청되는 장학생의 비율이 낮은 편이다. 국제화 시대를 맞아 국제 협력 및 교류를 확대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정부로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발전된 한국의 실정에 맞는 예산의 확보를 통한 초청 장학생 인원의 증원과 더불어 물가수준에 맞는 생활비 지원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차원에서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유학박람회외의 경우 2007년도에는 7개국 11개 도시를 대상으로 176개 대학이 참여하였고 2008년에는 7개국 11개 216개 대학이 참가하였으며, 2009년에는 6개국 7개 도시에서 개최하였다. 이러한 유학박람회를 통한 홍보의 비중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홍보의 전략 중에서 다른 부문에 비해 비중이 높은 편이다. 유학 박람회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유학생의 유치를 위해서는 개최 대상국가와 도시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정부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전략과 더불어 외국인 유학생이 유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유학과 관련한 알선업체나 기타 비공식적인 유학원 등에서의 높은 유학비용과 기타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산학협조체계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대학과의 연계

를 통해 인턴십과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수요기반을 구축 하므로 이들이 국내에서 전문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들이 국내에서 유학하는 과정에서부터 취업, 거주에 이르기까지 외국인들의 여건을 반영한 간소화되고 특성화된 정책이 시급할 것이다.

넷째, 외국인 유학생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문화와 정보, 그리고 유학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거점형 외국인 유학생 종합 정보 센터(가칭)가 필요할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을 찾을 때 그 우선적으로 그 지역의 문화와 지역 내 먼저 온 외국인 유학생들과의 만남을 통한 정보교환, 그리고 자연스럽게 국내 학생들과 어울릴 수 있는 장을 만듦으로써 유학과정에서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는 지역 내 외국인 유학생 종합 정보 센터의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담 사회복지사를 두어 처음 온 외국인 유학생에게 한국어 교육이나 문화체험, 기타 유학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 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유학생들의 보다 나은 학업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의 지원역시 필요하다. 이는 정부와 대학의 외국인 유치 확대 전략에 따라 급속히 증가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관리하므로 이들이 겪을 수 있는 부정응을 최소화하고 유치에 따른 기대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따라서 대학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 겪는 언어의 장벽으로 인한 학습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대학별로 외국인 영어 전용강좌를 개설하고 있지만 충남지역 대학 중 영어전용강좌를 개설해 놓은 대학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여섯째, 증가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대학에서의 생활가운데 외국인 유학생들은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갈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쉽게 적응하는 방법은 내국 학생들의 도움일 것이다. 따라서 내국 학생들과 외국인 유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만나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확대할 필요하다. 이러한 활동은 학기 초나 방학 때와 같이 한시적인 방안이 아닌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국내 기업과 연계하면서도 외국인의 특성을 반영한 처우와 법적인 지원체계를 제도화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제4장 외국인 유학생 적응 및 정책방안 조사 결과

### 1. 조사개요

충남거주외국인 유학생들의 적응을 살펴보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사를 실시하였다.

첫째, 충남거주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충남거주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심층면접은 총 10명을 면접하였으며, 이 중 대학원생인 3명, 학부생이 7명 이었다.

둘째, 충남지역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전문가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충남지역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전문가는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층면접 참여자인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 전문가에 대한 면접기간은 2009년 7월 1일부터 10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참여자 당 면접시간은 약 50분 정도 이었으며,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는 전화로 연락하였다. 외국인 유학생 면담은 한국어능력정도가 4급 이상이며, 자신의 의사를 한국어로 표현할 수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면담장소는 연구자의 연구실 또는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조용한 장소, 사무실 등에서 실시하였다.

### 2.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과 정책 제언에 대한 면접 결과

#### 1)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

참여자는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관련전문가로 구분하여 심층면접을 하였다. 외국인 유학생 참여자는 총 10명이며, 국적은 모두 중국이었으며, 이 중 남학생은 3명, 여



학생은 7명이었으며, 학부생은 7명, 대학원생은 3명이었다. 또한 체류기간은 1년~ 5년이었  
 며, 한국어 능력정도는 4급 정도를 가진 학생이 제일 많았으며, 거주형태는 주로 원룸에서  
 거주하였다(표 4-1 참조).

〈표 4-1〉 연구참여자인 외국인 유학생의 일반적 특성

참여자	연령	성별	국적	학력	체류 기간	한국어능력 성적정도	거주 형태	부모직업
1	23세	남자	중국	학부	2년	4급	원룸	회사원, 의사
2	23세	여	중국	학부	2년	4급	원룸	회사원
3	23세	여자	중국	학부	2년	4급	원룸	회사원
4	28세	남자	중국	학부	4년	미응시	원룸	사업경영
5	28세	남자	중국	박사	3년 6개월	5급	원룸	회사원
6	23세	여자	중국	학부	1년	미응시	원룸	회사원, 여관운영
7	29세	여자	중국	석사	5년	4급	원룸	회사원
8	23세	여자	중국	학부	4년	4급	원룸	사업
9	23세	여자	중국	학부	4년	4급	원룸	회사원
10	39세	여자	중국 조선족	박사	1년	능통	기숙사	본인:간호사

한편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전문가는 7명이며, 직업은 교수가 5명, 국제교육원 강사 1명,  
 행정직원 1명 등이다.

〈표 4-2〉 연구참여자인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전문가의 일반적 특성

참여자	연령	국적	직업
11	50대	한국	교수
12	40대	한국	교수
13	40대	대만	교수
14	50대	한국	교수
15	40대	한국	교수
16	20대	한국	행정 직원
17	40대	한국	국제교육원 한국어강사

## 2)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에서의 적응 실태

### (1) 한국어를 익히는데 많은 시간이 듦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어를 익히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발음과 문법이 너무 어렵다고 하였다. 처음에는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 중국에서 한국어에 대한 선행학습을 하지 않고 와서 더욱 힘들었다고 하였다.

- 한국에 와서 2년간 어학원에서 한국어공부를 했는데, 발음과 문법이 너무 어려워요(참여자 1, 2, 3, 4).
-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중국에서 한국어를 전혀 배우지 않고 와서 백지상태와 같았어요(참여자 6).
- 한국어가 아직 모자라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참여자 6).
- 아파서 병원에 갈 때 말이 통하지 않으니깐 힘들었어요(참여자 8, 9).

### (2) 어학원 과정의 한국학생 교류 및 교과서의 내실화 필요성

어학원에서의 교육은 같은 국적의 학생들이 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한국어 실력이 늘지 않으며, 한국인과의 교류가 별로 없으며, 중국에서 가져 온 교재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였다.

- 중국인끼리 수업을 하니까 언어 실력이 빨리 늘지가 않았지만 열심히 했어요(참여자 6).
- 한국인과의 교류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저는 그래도 겨울방학 때 운 좋게 한국인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중국어를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었어요. 그 때 많이 늘었어요(참여자 7).
- 교재가 어려워요. 그래서 중국에서 가져온 교재로 공부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강사에게 물어보고, 혼자 도서관에 찾아가서 공부했어요(참여자 5).

### (3) 외국인에 대한 법적권리부여의 부실

한국에서 생활을 할 때 컴퓨터 포털사이트 가입시 외국인이기 때문에 가입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자신의 나라에서 가져온 돈을 은행에 예금할 수 없어서 불편하다고 하

였다. 또한 의료보험 혜택이나 임금, 이동통신가입관련에 대해서도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없어 한국 내 생활이 불편하다고 하였다.

- 컴퓨터에서 한국업체의 인터넷포탈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 외국인이라서 잘 안 되는 곳이 있어요(참여자 4).
- 처음에 한국에 와서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지 못했을 때, 은행에 예금이 되지 않아서 불편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중국에서 가져온 돈 100만원 정도를 기숙사에 두었다가 모두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학교에 건의를 해서 여권을 가지고도 예금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참여자 10).
- 외국인은 의료보험혜택이 없어 병원비가 비싸다는 말을 듣고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참여자 9).
-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장이 한국 사람들과 똑 같이 일하는데도 시급을 한국사람들 보다 작게 줄 때, 고용계약을 써주지 않을 때 호소할 데가 없어요(참여자 10).
- 핸드폰 살 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보증금을 20만원씩 내야 해서 억울했어요, 나중에 귀국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좀 그래요(참여자3).

#### (4) 무시당함

참여자들은 한국학생들이 시끄럽다고 싫어하고, 교수님으로 부터도 한국어를 잘못해서 무시당하기도 했다고 말하였다.

- 중국말은 사성이 있으니깐 큰 소리로 말을 하면 시끄러워요. 그래서 그런지 기숙사 생활을 할 때 중국학생들이 말하면 시끄럽다고 싫어했어요(참여자 4).
- 내가 강의에 들어갔더니 교수님이 ‘내 강의는 어려운 데 왜 수업에 들어왔지?’ 라는 말을 할 때 무시당한 기분이었어요(참여자 7).
- 기숙사 생활할 때 한국학생들이 중국학생들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중국인은 더럽다고 하고, 시끄럽다고 하고... (참여자 8, 9).
- 기숙사에서 한국학생은 중국학생과 같이 방을 쓰지 않으려고 해요. 한국학생이 중국인과 방을 쓰게 되면 불쌍하다고 말해요(참여자 7).

#### (5) 아르바이트

한국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경제적으로 자립하려는 의지가 강하여서, 학기 중 또는

방학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벌고, 생활비를 최소한도로 아껴 쓰면서 절약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인 유학생의 아르바이트는 출입국관리국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지만 이러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유학비자(D2)로 입국한 외국인 학생들이 경우 주중에 20시간의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어학연수비자(D4)로 입국한 학생들은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학생의 경우 최고 강제출국을 당할 수 있고, 이들을 고용한 업주도 벌금에 처해진다.

- 한국에 처음 올 때 돈을 좀 가져왔기 때문에 그 돈으로 생활비는 해요. 한 달에 생활비는 약 20만원 정도 써요. 이것 가지고 생활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요. 방학 때 아르바이트하면서 150만원 정도 벌었어요. 그 돈으로 2학기 학비를 냈어요. 부모님은 중국에서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또 돈 달라고 말하기 싫어요(참여자 1, 2, 3, 5).
-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공부해야 하니까 시간도 없고, 한국어가 서툴러서 알바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학교에서 근로학생으로 일하면서 한 달에 40만원 정도 받아요. 부모님한테 돈 받지 않아도 돼요(참여자 7).

#### (6) 강의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함

참여자들은 수업시간에 교수님 강의 내용을 잘 알아듣지 못해서 힘들 때가 많으나, 한국친구들한테 신세지는 것이 싫어서 혼자 앉아서 수업을 듣는 경우도 있었다.

- 수업시간에 교수님 말을 못 알아들을 때는 전자사전을 찾으면서 수업을 들어요. 특히 더 어려운 것은 발표 수업과 리포트를 낼 때예요(참여자 4).
- 수업시간에 저는 혼자 앉아요. 처음에 한국친구들이랑 같이 앉았는데 친구들 시간을 내가 다 낭비해서 싫었어요. 나한테는 어려운 내용이 한국친구한테는 쉬운 것이잖아요. 남에게 폐 끼치기 싫어서 친구 옆에 앉을 수가 없어요(참여자 3).
- 처음에는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서 힘들었어요. 지금은 교수님 말을 약 70%는 이해할 수 있어요. 아직도 시험 보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참여자 8, 9).

#### (7) 한국친구를 사귀는 데 소극적임

참여자들은 자신이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하다는 열등감 때문에 한국친구를 사귀기 위

해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또한 자신의 나라 학생들과 친하게 지내는데 익숙해져 있어서 한국친구를 굳이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 매일 매일 수업이 있으니 시간도 없고, 수업시간에 한국친구가 옆에 앉아 있을 때 뭐 물어보면 알려주는 정도예요. 그다지 어울리지 않아요. 보면 인사하는 정도예요(참여자 4).
- 한국친구를 사귀고 싶어도 내가 한국어를 잘 모르니까 자꾸 묻고 그러면 한국학생한테 부담이 될까봐 걱정이 되고 미안해서 친하게 지내지 않아요(참여자 1, 2, 3).
- 얼굴을 알고 지내는 한국친구는 많지만,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만한 친구는 없어요(참여자 6, 8, 9).
- 내가 한국말이 서툴다는 생각 때문에 한국 학생들한테 먼저 쉽게 다가설 수가 없어요(참여자 1,2,3,6).
- 한국친구가 없어도 중국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일부러 사귀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참여자 8,9).
- 여러 가지 마음 속의 얘기를 하고 싶은데 친구가 없고 아직은 한국말이 서툴러서 친구 사귀기가 쉽지 않아요(참여자 6).

#### (8) 학교행사 참여가 적음

참여자들은 과대표가 학교행사가 있다고 문자를 넣어주고 전화를 해도, MT, 체육대회, 학술대회 등 학과 행사나 학교행사에 잘 참석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 과에서 행사가 있을 때 한번 갔었어요. 스승의 날 행사를 할 때 가보니까 너무 어색했어요. 아는 친구들도 없고.. 그래서 오래 있지 않고 곧 바로 나왔어요(참여자 1, 2, 3).
- 체육대회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MT는 알고 있었는데, 1박2일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안 갔어요. 그리고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것도 싫고... 재미도 없어요(참여자 4).
- 학교에서 행사가 있을 때 과대가 문자 보내줘요. 다른 일도 해야 하고 수업듣기도 바쁘니까 잘 참석 안해요(참여자 8, 9).

#### (9) 지역사회 문화 참여

참여자들은 지역사회에서 실시하는 문화행사, 즉 백제문화제에 참여하였으며, 학교에서

실시하는 역사문화탐방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 백제문화제를 할 때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도 있어서 참석했어요. 해마다 공산성도 가봤어요(참여자 1, 2, 3, 5).
- 교회에서 태안 기름 유출사고 때 자원봉사하러 다녀왔어요. 그리고 서울, 목포, 천안, 서산 등 여러 곳을 다녀왔어요(참여자, 5, 7).
- 학교에서 단체로 충남지역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다녀왔어요. 그리고 또 서울도 다녀왔어요. 작은 도시에 있다가 한국에서 제일 큰 서울을 다녀오니깐 참 좋았어요(참여자 7).
- 저는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도 많이 가봤구요, 노인요양시설, 복지시설 등 많은 곳을 가봤어요. 중국보다 우수한 시설을 많이 보고 배워서 중국에 가서 활용하려고 해요(참여자 7).

#### (10) 좋은 지지체계와의 만남

참여자들은 학교 교수님이 가끔 어떻게 지내는지 상담도 해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며, 교회를 다니면서 한국 사람을 만나고, 취미생활을 통해 한국에서의 활동영역을 넓히기도 하였다.

- 교수님이 지금 어떻게 지내냐고 말 걸어주고, 만나서 얘기해줘서 많이 따뜻해요(참여자 1, 2, 3).
- 제가 석사 논문 쓸 때 교수님이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참여자 5).
- 교회에 가면 한국말을 배울 수가 있어서 좋고, 점심도 주는 데가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좋아요(참여자 10).
- 저는 운동을 좋아해요. 중국에 있을 때 축구 선수이었어요. 한국에 와서도 축구동아리에 들어서 주말마다 운동하면서 지내요. 학교친구보다 운동친구가 더 많아요(참여자 5).

#### (11) 졸업 후 고국에 돌아가고 싶어함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에서 취업을 할 정도로 한국어 실력이 높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국에 머물기 보다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한국관련 회사나 고국에서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였다.

- 한국어 실력이 좋지 않아서 한국에서 자리 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대학원에 가고 싶어도 영

어를 잘 못하니까 갈 수 없고, 한국에서 취직하기도 어려워요.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참여자 1, 2, 3).

- 중국으로 돌아가서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 제 생각에는 공무원이 되는 것이 가장 성공한 것이에요(참여자 4, 9).

#### (11)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조언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생활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여행도 많이 하고, 한국어 공부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을 당부하였다.

- 우리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돼요. 집에만 있지 말고 밖에 많이 나가서 한국친구들 많이 사귀고 여행도 많이 하는 것이 좋겠어요(참여자 1, 2, 3, 6).
- 한국에서 공부했다는 졸업장만 있다고 해서 고국에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도 중요하지만 공부시간을 빼앗기면서 까지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참여자 7).
- 어학원에서 한국어 연수를 할 때 중국인 강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문법이나 한국생활 등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참여자 5).

#### (12) 유학생들의 내실화를 위해 건의사항

참여자들은 유학생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장학금제도를 확충, 기숙사에서 한국학생과 룸메이트 활성화, 도우미제도 확충, 외국인학생회 신설, 외국인 전용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였다.

-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더 많은 장학금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한국 물가가 고국보다 비싸니까 생활비를 아껴서 써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참여자 5).
- 한국어 연수를 받을 때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한국 학생과 한방을 쓸 수 있게 해 주면 좋겠어요. 같은 나라 학생과 생활을 하니까 한국어 실력이 늘지 않아요(참여자 6).
- 처음에 한국에 오면 중국학생을 위한 중국인 선배 도우미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저것 물어보고, 앞으로의 방향도 논의하고..(참여자 8, 9).
- 같은 나라 학생들끼리 하는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MT나 체육대회 등...또 외국인유학생 학생회가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유학생들의 권리를 정식으로 학교에 건의할 수도 있고.. 다른 학교에는 다 있다고 해요(참여자 9).

- 연수받기 위해 온 외국인 학생들이 고국에서 설명만 듣고 와서는 실망이 커요. 도시도 작고.. 시설도 나쁘고... 학생들이 실망하고 다른 대학으로 가거나 고국으로 되돌아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외국인 유학생에게 홍보할 때 정확하게 홍보를 하고, 유학생관리를 잘 해주었으면 좋겠어요(참여자 10).
-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을 채용해서 외국인 유학생을 도와주는 제도도 좋지만, 외국인 학생만을 잘 도와주는 정직원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참여자 7, 10).

### 3) 외국인 유학생관련 전문가의 정책 제언

#### (1)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독립반 운영의 필요성

참여자자는 외국인 유학생이 1학년 1학기에 한 학과에 20명이 넘을 경우 그들만을 위한 별도의 반을 운영하니까 교수가 수업 내용을 융통성 있게 진행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였다.

- 작년부터 우리 과는 1학년 1학기만 외국인 유학생만 수업하는 독립반을 운영하였어요. 독립반을 운영하니까 이들을 위해 수업 내용을 좀 쉽게 할 수도 있고, 이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애기도 해줄 수가 있어서 더 좋았어요(참여자 12).
- 한 학년에 외국인 유학생 고작 3~4명밖에 되지 않을 겨우 한국 학생들 틈에 있으면 한국인 학생 위주로 수업을 하니까 어려워서 수업을 들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수업료를 내고 서비스를 받을 수 가 없는 거지요(참여자13).

#### (2) 외국인 유학생 학생회의 필요성

참여자자들은 외국인 유학생회 조직을 통해 학교 당국에 자신들의 권익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 우리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수가 최근 들어 갑자기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들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해 주고, 이들의 권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조직이 없어요. 외국인 학생을 위한 클럽이나 동아리는 필요하다고 봐요(참여자11).
- 외국인 유학생회 설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유학생관리를 위한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참여자14)



### (3) 한국어 교양과목 강좌 개설의 필요성

참여자들은 교양과목에서 한국어 강좌를 개설해 줌으로써 부족한 한국어를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 대학의 학부과정에서 한국어를 교양강좌로 개설해 주면, 한국어 수업을 더 받을 수 있어서 유학생들의 언어실력이 향상될 수 있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봐요(참여자13).

### (4) 한국학생들의 편견 개선을 위한 노력과 정책의 필요성

참여자들은 한국학생들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불식하고, 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들을 더 많이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한국학생들의 의식개선과 외국유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해요. 내가 외국에 나가 공부를 할 때 그 나라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대하는 것 처럼 한다면 공부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해요(참여자15).
- 기숙사배정에 있어서 한국학생들과 한 방에 배정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면 한국 내 생활과 학교생활 적응이 쉽고 빨라질 것 같아요. 외국인 유학생 2명과 한국인 2명이 함께 방을 배정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참여자16).

### (5) 외국어교육원 강사의 전문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내 대학 외국어교육원에서 제대로 수업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강사의 자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화시켜야 한다.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전임교수제를 도입해야 해요. 그런데 지금은 학교에서 외국어교육원에 대해서 수익사업으로만 생각하니까 시간강사만 활용하려고 하니까 강의의 질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참여자 15).
-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은 수업을 할 때 틀리게 가르쳐요. 확실히 알고 가르치면 쉽게 가르칠 수 있잖아요. 불필요한 것과 필요한 것을 취사선택해서 어떤 것이 외국학생들한테 좋은 것인지 고민하고 선택가능해요(참여자 17).

### (6) 어학연수생을 위한 학부 체험 기회 제공

한국에 온 외국인 유학생 어학연수생들에게 대학 수업을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1~2주간 제공해 주면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고 어학원학생들을 그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어학원 연수생이 학과 교수의 허락을 받고 학부 수업을 미리 체험해 보는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시도를 해 보지 않았지만, 제도적으로 정착을 해 나간다면 어학원생들의 만족도도 높이고, 학부에서도 자신의 학과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참여자 15).

### (7)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일상생활관리 교육의 필요성

외국인 유학생들한테 한국문화적인 습관을 교육시켜서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에서 잘 지켜서 문화적인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학생들한테 배척을 받는 것 중의 하나는 한국문화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래서 유학생들에게 한국의 생활 습관, 예를 들면 씻는 습관, 한국의 예절, 기숙사에서의 규정, 수업 출석율과 성실성, 책임감 있는 행동하기 등을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한국문화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참여자 15, 참여자 17).

## 3. 소결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적응 실태에 대한 면접결과 한국어 배우는데 많은 시간이 들고, 어학원 수업과정에서 한국학생과 교류를 하고 싶어하며, 교과서가 공부하기 좋은 교과서이기를 바라고 있으며, 외국인이라도 한국 내에서 자신들의 법적 권리가 부여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또한 한국인에게 무시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생활비를 스스로 버는 학생이 많았다. 그러나 한국 친구를 사귀는 데 소극적이고, 학교 행사에 참여가 적은 편이다. 또한 좋은 지지체계를 만나서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학교에 대한 건의사항은 장학금제도의 확충, 한국인과 함께 기숙사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외국인 유학생 도우미제도 확충, 외국인 유학생 학생회 인정 등을 요구하였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전문가의 정책적 건의 사항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독립반 수업 운영의 필요성,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학생회 필요성, 한국어 교양강좌 신설, 한국학생들의 의식개선, 어학원강사의 전문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생활관리 교육, 어학연수생에 대한 수업 체험제도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 제5장 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의 활성화 방안

우리나라의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은 2004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적극적인 지원 정책에 의해 활성화되었으며, 연도별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04년 16,832명에서 2008년 63,952명으로 현격히 증가하였다. 또한 충남지역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04년 1,201명에서 2008년 3,985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렇듯 외국인 유학생의 양적인 증가에 맞는 질적인 정책과 관리가 미흡한 점도 있어서 유학생의 부실관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었으나, 2009년 11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을 위한 표준업무 처리 요령(부록 4 참조)을 발표하고, 지침을 마련해 줌으로써 각 대학은 표준화된 지침에 의해 관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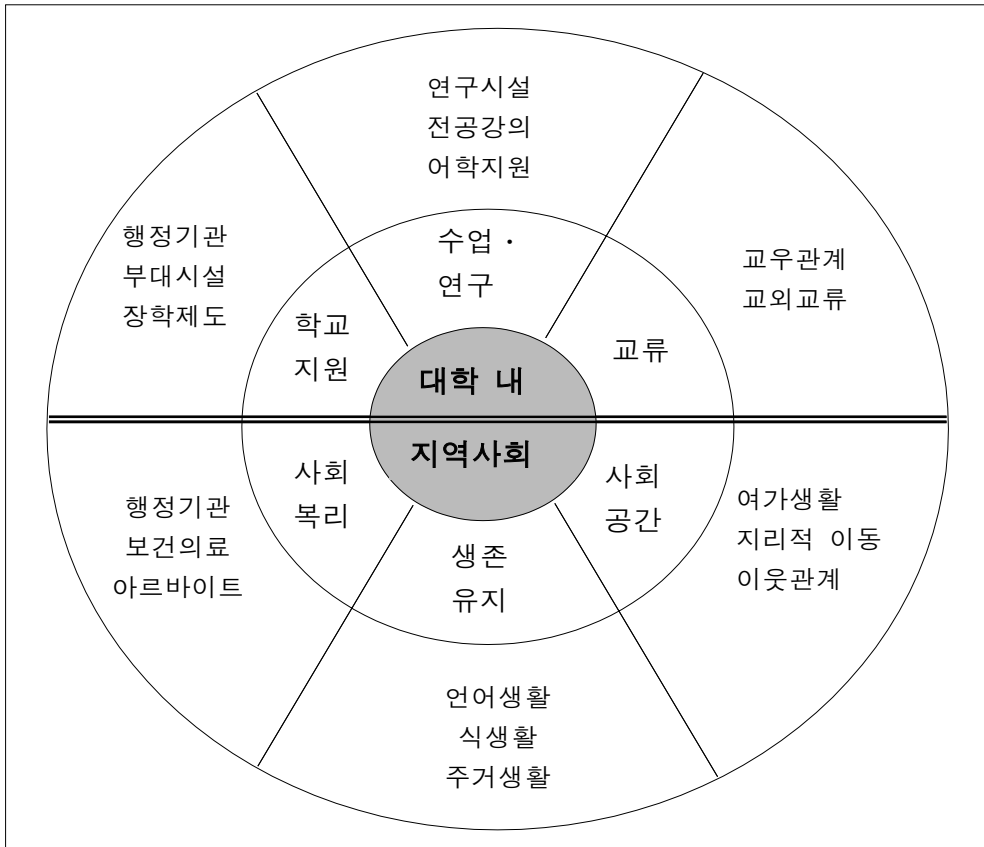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과 현황검토, 외국인 유학생과의 면접조사 및 관련 전문가와의 면접 조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방안을 종합하여 외국인 유학생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사회 활동은 외국인 유학생의 생활공간 범위를 모두 포괄한다. 먼저 외국인 유학생의 핵심적 활동인 대학 내 활동과 보조적 활동인 지역 사회에서의 활동으로 구성된다. 대학 내 활동은 다시 세부적으로 학교 지원활동, 수업·연구활동, 교류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활동은 사회복리활동, 생존유지활동, 사회공간활동으로 구분한다(박은경, 2008, 그림 5-1 참조).

아래의 그림에서 본 것처럼,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은 각 대학에서의 유학생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복리적인 면에서는 행정기관의 협조, 보건의료적인 혜택, 아르바이트 등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며, 생존유지를 위해서는 언어생활과 식생활 및 주거생활이 편리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사회공간활동으로는 여가생활, 지리적 이동 및 이웃과의 관계를 원활하기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들 각각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사회에서 적응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래의 그림에 맞춰 충남지역에서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그림 5-1>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사회 활동



출처 : 박은경(2008). 외국인 유학생의 국제이주와 지역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 1. 대학 내 외국인 유학생 지원 정책의 활성화

### 1) 장학금지원제도의 현실화

외국인 유학생은 대학정원 외 선발이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 입학은 대학에 재정적인 기여를 많이 한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아시아인이 97%를 차지하며, 그 중 중국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각 대학에서의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혜택은 아직도 미비한 수준이다.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경제적 유인정책은 자신이 유학할 나라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이다. 모든 외국인에게 일괄적으로 장학금을 주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 즉, 무조건적인 장학금의 확대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한 저평가 등 부정적인 요소를 감

안하여 성적 우수 장학금의 규정을 완화하여 B학점 이상의 학생에게 수업료를 면제하는 장학금을 줌으로서 더 많은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어야겠다.

## **2) 외국어교육원 수업의 내실화**

외국인 유학생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한국어 강의를 받고 다시 외국어교육원에서 6개월 정도 수강 후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와 자신의 나라에서 한국어 수업을 받지 않고 한국의 외국어교육원에서 1년 ~ 2년 수강 후 학부에 진학하는 경우로 대별된다.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내 어학원 수업이 전문화된 한국어 강사를 통해 양질의 수업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과서가 사용자의 편의와 입장에 맞게는 편성된 질 높게 제작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교과과정에서의 외국인 영어 전용강좌를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다. 언어의 장벽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뿐 아니라 영어 전용강좌를 통해 교육적인 불편을 최소화 하는 교육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 **3)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문화체험 운영의 충실화**

외국인 유학생에 있어 교우관계의 어려움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따라서 각 대학들은 저마다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전통문화를 소개시켜 준다든지 내국인 학우들과의 교제를 통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대부분의 문화체험 프로그램이나 적응 프로그램은 방학이나 특정 기간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국어 연수과정에서나 학부 초기 과정에서 지역 내 문화와 역사, 지리에 대한 교육과목을 개설하여 이를 통해 한국의 문화를 보다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4) 외국인 유학생회 활성화**

외국인 유학생의 의사결정과 의견 수렴을 위한 학생회조직을 인정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각국의 유학생끼리 상호간 네트워킹을 하고, 학교 내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 2. 지역사회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

### 1)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성

충남도청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매우 적은 편이다. 외국인 유학생은 향후 자신의 나라에 귀국했을 경우 충청남도 지역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충남 지역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 문화 탐방 프로그램과 산업체 연결을 통해 졸업 후 산업체 인턴십 및 취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업체와 1대 1 결연사업과 지역사회 유력인사와 1대 1 결연사업을 통해 충청남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인적자원 활용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 2)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써 불편함이 없는 생활여건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은행이나 병원 이용에 상당한 불편이 있다. 여권과 학생증으로도 은행예출금, 의료보험혜택, 핸드폰 구입 등 다양한 사회복지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마련, 다양한 외국인들의 식생활에 맞는 먹거리 개발, 다양한 문화가 어울릴 수 있는 생활문화적 공간 확보 등에 힘써야 할 것이다.

### 3)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협력

현재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약 93%가 아시아지역이며, 북미지역은 3.3%, 유럽은 2.4% 정도이다. 이렇듯 많은 아시아계통의 민족이 한국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지역사회는 한국을 이들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따라서 지역사회는 주민들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전략 마련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 제6장 결 론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긴급한 과제라 할 것이다. 따라서 각 나라들은 21세기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측면에서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해서 양성하는 측면에서의 유치 정책을 지향해 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목적의 일환으로 증가하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이해와 충청남도에 속한 외국인 현황과 문제점, 이를 통한 정부와 대학에서의 정책적 방향과 외국인 유학생 활용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우선 충남 거주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얻은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를 배우는데 많은 시간이 든다는 것이다. 한국으로 유학을 오기 전 선행학습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어려움이 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어학연수 과정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국내의 외국어 교육원에서의 수업은 같은 국적의 학생들이 많고 한국인과의 교류가 적어 한국어 실력이 향상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셋째, 외국인에 대한 법적 권리의 부실을 들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컴퓨터 포털사이트에 가입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의료보험 혜택이나 이동통신 가입관련에서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여 생활이 불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한국 사람들로 부터의 무시를 당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학습과정에서의 다른 사람들로 부터 오는 무시나 외국인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생활비를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 학기 중이나 방학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섯째, 강의시간에 강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많았으나, 한국친구들의 신세를 지기 싫어 혼자 앉아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있었다. 일곱째, 한국 학생들과의 교제는 한국어가 서툴기 때문에 친구를 사귀는데 소극적이었으며, 자기나라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었다. 여덟째, 학교행사는 학과 대표가 문자나 전화로 알려주어서 행사 소식을 알고 있지만 어



색해서 잘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아홉째, 교수와의 상담을 하거나 교회에서 사람을 만나고 취미생활을 하는 등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열 번째, 졸업 후엔 한국어 실력이 높지 않기에 한국에 머물기보다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학생이 많다.

다음으로 충남지역 외국인 관련 전문가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독립반 운영의 필요성을 들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독립반을 운영할 때 교수가 수업 내용을 융통성있게 진행할 수 있어 유학생에게 필요한 수업을 적절하게 진행 할 수 있다. 둘째, 외국인 유학생 학생회가 필요하다. 외국인 유학생회를 조직하여 자신들의 권익을 주장할 수 있고 유학생을 관리하는데 좋은 방법임을 말하고 있다. 셋째, 한국어 교양과목의 개설의 필요성을 들고 있다. 한국어 강좌를 통해 부족한 한국어를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한국 학생들의 인식개선과 정책의 필요성을 들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노력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섯째, 외국어 교육원 강사의 전문화이다.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한국어 연수과정에서의 강사의 질은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에 이를 전문화시킬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여섯째, 어학연수생에게 학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연수생들에게 대학 수업을 미리 체험하게 함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일곱째,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일상생활 관리교육의 필요성이다.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을 통해 문화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갈등이 심화되지 않게 한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대학 내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은 장학금지원정책의 현실화, 외국어교육원 수업의 내실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문화체험 내실화, 외국인 유학생회 활성화 등이다. 또한 지역 사회 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은 지자체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인적 자원 네트워크 구성,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협력 등이다.

세계적으로 부는 세계화와 그에 따른 인재들의 육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에 더불어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유치 정책으로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유학생의 증가세와 더불어 이제 우리나라 교육체계 속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확대 유치를 위한 정책적인 측면과 각 대학에서의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 학위논문 >

- 소영원(1997).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수준과 적응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희(2009). 재한 중국 유학생의 사회문제해결능력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모(2008).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 실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지선근(1999). 부모의 지지 및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와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진희(2006). 주한 외국인의 한국이미지에 대한 연구: 국내 거주 중국 및 일본 유학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지인(2008). 재한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간의 관계.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기선(1985). A Study on conversational implicature : irony as a case of quality maxim exploitation.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 학술지 및 보고서 >

- 교육인적자원부(2004).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종합방안.
- 교육인적자원부(2007). 2007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09). 2008년도 교육통계분석자료집.
- 교육과학기술부(2009). 외국인 유학생지원관리개선방안.
- 국립교육진흥원(2008). 한국유학정보.
- 국립교육진흥원(2009). 한국유학정보.

- 김남희 외(2005). 국외 인적 자원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정책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김선남(2007).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적응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29(46).
- 김현주, 전광희, 이혜경(1997). 국내 거류 외국인의 한국사회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40(1). 105-139.
- 김은정, 이정윤, 오경자(1992). 자기자각, 사회적 지지 및 대처행동이 대학생활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 6개월간 추적 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논문집. 525-534.
- 김은환(2002). 핵심인재확보 양성전략. CEO Information.
- 나임순(2006).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생활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비영리연구.
- 노종희 외 (2003).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국가별, 지역별 대학 마케팅전략. 교육인적자원부 보고서.
- 노충래(2002). 재외국민트레입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3권. 87-120.
-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2005). 외국인 정책의 과제와 추진방안.
- 박선영(2003). 한국인의 정체성 문제와 종교교육. 종교교육연구. 16집. 3-26.
- 박은경(2008). 외국인 유학생의 국제이주와 지역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 서울신문 2007년 7월 7일자. 외국인 유학생 학내 성폭력 무방비.
- 서울경제신문 2005년 9월 15일자. 글로벌 인재확보전략.
- 이명재(2006).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취업 연계 장학 프로그램 개발. 교육인적자원부.
- 이현지, 남현주(2003) 청소년학연구. 121-142
- 정현욱(1996). 대학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 조명희, 박수선(1998). 스트레스 지각정도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학생생활연구. 16집.
- 최송미(2001). 한·중 대학생의 대학 생활적응과 정신건강에 대한 비교연구. 경희대 학생 생활연구. 6권.
- 최정순(2007). 해외인적자원 유치확대 및 활용을 위한 유학생 지원 전담기구 설립방안 연구.
- 허춘영, 김광일(1997). 중국유학생의 문화 적응 양상에 대한 연구. 정신건강연구. 16권. 166-178.

< 외국문헌 >

- Adams, H. E.(1972). Psychology of adjustment. The Ronald Press Company.
- Arkoff, A.(1968). Adjustment and mental health. New York : McGraw-Hill.
- Baker, R. W.& Siryk, B.(1984). Maturity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 Zastrow, C. & Kirst-Ashaman, K. K.(2002).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김규수 외 역, 서울 : 나눔의 집.
- Gerdes, H. & Mallinckrodt, B.(1994). Emotional social and academic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 A longitudinal study of retention.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2.
- OECD(2002). Education policy analysis. Paris.
- Oberg, K.(1960). Cultural shock: Adjustment to new cultural environment. Practical anthropology. July-august.
- Lazarus. R. S.(1976) Pattern of adjustment. McGraw-Hill inc.

< 웹사이트 >

-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 한국학술진흥재단. <http://www.krt.or.kr>
- 국제교육진흥원. <http://www.studyinkorea.go.kr>

## <부록 1> 외국인 유학생용 설문지

### 충남 거주 지역 외국인 유학생 현황과 과제에 대한 학생용 설문지

면접일시 : 2009년      월      일

#### I. 인적사항

1. 성    명    :
2. 연령    : (만)      세
3. 인종    :
4. 대학교명/학과 :    대학교      학과 석사, 박사, 학부, 어학원      학년
5. 한국체류기간 :      년      개월
6. 한국어 능력 정도 :    한국어 시험 성적
7. 가족관계 :
8. 거주지 : 기숙사, 원룸    하숙, 기타(    )
9. 고국의 방문정도 :
10. 친구관계 :    한국친구 (      )    자국민 친구(      )명
11. 유학 오기 전 한국어 능력 정도

II. 유학 오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III. 유학 초기의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어학원에서의 경험, 언어문제, 친구관계, 문화적 차이 등

IV. 현재 적응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학업능력정도, 학교 활동, 교수님과의 관계, 졸업 후 계획 등

V.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활동이나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V.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정책에서 학교 및 지역사회에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 <부록 2>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전문가용 설문지

충남 지역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전문가용 설문지
---------------------------

면접일시 : 2009년      월      일

### I. 인적사항

1. 성    명    :
2. 연령    : (만)      세
3. 직업    :
4. 근무처   :      대학교
5. 현 직책 근무기간 :

II. 외국인 유학생을 교육 한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III.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학교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IV.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지역사회자치단체나 지역사회에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부록 3> 외국인 주요 체류자격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1. 외교(A-1)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자와 그 가족
2. 공무(A-2)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자와 그 가족
3. 협정(A-3)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이 면제되거나 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가족
4. 사증면제(B-1)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의한 활동을 하려는 자
5. 관광통과(B-2)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없이 입국하려는 자
6. 일시취재(C-1)	일시적인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7. 단기상용(C-2)	시장조사, 업무연락, 견학, 상담, 계약, 수출입 기계 등의 설치·보수·검수·운용요령습득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8. 단기종합(C-3)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참석, 학술자료수집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제외]
9. 단기취업(C-4)	일시홍행, 광고·패션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
10. 문화예술(D-1)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자 포함]
11. 유학(D-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12. 산업연수(D-3)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자로서 국내의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13. 일반연수(D-4)	유학(D-2)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외에 교육기관이나 기업체·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자[연수기관으로부터 체제비를 초과하는 보수를 받거나 산업연수(D-3)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14. 취재(D-5)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의 파견 또는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15. 종교(D-6)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대한민국에 있는 지부 또는 유관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와 대한민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초청되어 사회복지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정한 종교활동 또는 사회복지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16. 주재(D-7)	가. 외국의 공공기관·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그 밖의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지사, 자회사, 주재사무소 등에 필수 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자 [다만, 기업투자(D-8)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근무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으려는 사람(다만, 상장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 중 본사의 투자금액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채류자격 (기호)	채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17. 기업투자 (D-8)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다만,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나. 산업재산권이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자(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예비벤처기업확인을 받은 사람을 포 함한다)
18. 무역경영 (D-9)	대한민국에 회사를 설립하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무역 기타 영리사업을 위한 활동을 하려는 자 로서 필수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자(수입기계 등의 설치, 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제작감독 등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공·사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하되, 국내에서 채용하는 자와 기업투자(D-8)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18의2. 구직 (D-10)	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 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하여 연수나 구직 활동 등을 하려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19. 교수 (E-1)	고등교육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지도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20. 회화지도 (E-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 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21. 연구 (E-3)	대한민국내의 공·사기관으로 부터 초청되어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교수(E-1)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22. 기술지도 (E-4)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 국내의 공·사기관으로 부터 초청되어 종사하고자 하는 자
23. 전문직업 (E-5)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기타 국가공인 자격 을 소지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회계, 의료 등의 전문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교수(E-1)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24. 예술흥행 (E-6)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 경기, 광고·패션모델 기타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25. 특정활동 (E-7)	대한민국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특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25의2. 연수취업 (E-8)	삭제(2007.6.1) [시행일: 2010. 10. 1.]
25의3. 비전문취업 (E-9)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자[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25의4. 선원취업 (E-10)	「해운법」 제3조제1호·제2호 및 제23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수산업법」 제8조 제1항제1호 및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 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선원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부원(部 員)에 해당하는 자
26. 방문동거 (F-1)	가.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자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사보조인 1) 외교(A-1), 공무(A-2)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투자자(임직원을 포함한다)로서 체류자격이 기업투자 (D-8)·거주(F-2)·영주(F-5)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가사보조인, 교수(E-1)·연구(E-3)·특정활동 (E-7)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보기술(IT),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분야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첨단·정보기술 업체에 투자한 외국인투자자(임직원을 포함한다)로서 체류자격 기업투자(D-8)·거주(F-2)·영주(F-5)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4) 주재(D-7), 무역경영(D-9) 자격이나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자격 중 어느 하나의 자격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26. 방문동거 (F-1)	<p>다. 외교(A-1) 내지 협정(A-3)자격에 해당하는 자와 외국인등록을 마친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p> <p>라.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내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p>
27. 거주 (F-2)	<p>가. 국민 또는 영주(F-5)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p> <p>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와 그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p> <p>다. 난민인정을 받은 자</p> <p>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려는 자로서 투자금액이 미화 50만 달러 이상인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하는 자 중 기업투자(D-8)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자</p> <p>마. 영주(F-5)자격을 상실한 자 중 국내 생활관계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강제퇴거된 자는 제외한다)</p> <p>바.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7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다만, 교수(E-1)부터 전문직업(E-5)까지 또는 특정활동(E-7)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최소 체류기간을 5년으로 한다]</p> <p>사.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 또는 방문취업(H-2)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자로서 과거 10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자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기능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일정금액 이상의 임금을 국내에서 받고 있을 것(기술·기능자격증의 종류 및 임금의 기준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li> <li>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것</li> <li>3)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li> </ol> <p>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28. 동반 (F-3)	문화예술(D-1) 내지 특정활동(E-7)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20세 미만의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자[산업연수(D-3)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28의2. 재외동포 (F-4)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단순노무행위 등 제23조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려고 하는 자는 제외)
28의3. 영주 (F-5)	<p>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강제퇴거대상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가.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이고,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자로서, 예술홍행(E-6) 자격을 제외한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자격이나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p> <p>나. 국민 또는 영주(F-5) 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 및 대한민국에서의 출생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부여 신청을 한 자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F-5)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p> <p>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투자자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자</p> <p>라.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p> <p>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 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자</p>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28의3. 영주 (F-5)	<p>바. 종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2. 4. 18. 공포·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 제27호란의 거주(F-2) 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 있었던 자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인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p> <p>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박사학위증이 있는 자로서 영주(F-5) 자격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자</p> <p>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자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F-5) 자격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자</p> <p>자.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자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p> <p>차.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p> <p>카. 60세 이상인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해외로부터 수령하고 있는 자</p> <p>타. 방문취업(H-2)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표 제27호 거주(F-2)란의 사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 중 근속기간이나 취업지역, 산업분야의 특성, 인력부족 상황 및 국민의 취업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29. 기타 (G-1)	외교(A-1) 내지 영주(F-5) 및 관광취업(H-1)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0. 관광취업 (H-1)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관광경비 충당을 위하여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협정 등의 취지에 반하는 업종이나 국내법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려는 자는 제외]
31. 방문취업 (H-2)	<p>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 동포에 해당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만 25세 이상인 자 중에서 다음의 활동범위 내에서 체류하려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재외동포(F-4)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및 그 직계비속</li> <li>2)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li> <li>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자</li> <li>4)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자</li> <li>5) 유학(D-2)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의 부·모 및 배우자</li> <li>6)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자</li> <li>7) 1)부터 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말 시험, 추천 등의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자</li> </ol> <p>나. 활동범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방문, 친척과의 일시 동거, 관광, 요양, 견학, 친선경기, 비영리 문화예술활동, 회의 참석, 학술자료 수집, 시장조사·업무연락·계약 등 상업적 용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의 활동</li> <li>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서의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물 재배업, 축산업, 연근해어업, 양식 어업, 제조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건설업, 산동물 도매업,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 가정용품 도매업, 기계장비 및 관련물품 도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무점포 소매업, 육상 여객 운송업, 냉장 및 냉동 창고업, 호텔업, 여관업, 일반 음식점업, 기타 음식점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건축물 일반 청소업,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욕탕업, 업용 세탁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li> </ul> </li> </ol>

## < 부록 4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 요령

(교육과학기술부 2009년 11월)

### I. 목적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이하 “유학생 등”이라 한다.)의 선발 절차와 학업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 대학의 업무처리를 표준화하고, 유학생 등의 안정적인 국내 유학을 지원한다.

### II. 적용대상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제7호에 따른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의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연구를 하는 학생
  - 단, 야간대학 및 원격대학의 유학생 등에 대해서는 입국절차(Ⅲ-1)에 관한 내용은 적용하지 않는다.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국내 대학이나 대학원의 정규 과정·연구과정 외에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습득하고자 하는 어학연수생

### Ⅲ. 유학생 등 선발

#### 1. 입국 절차

- 입학허가서 신청 →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 (사증발급신청서 발급 신청 → 사증 발급신청서 발급) → 사증발급 신청 → 사증발급 → 입국
- ※ 사증발급신청서 발급 신청은 초청자가 대리할 수 있으며, 대학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이 지정하는 유학생 관리 부서의 장 명의로 신청 가능

#### 2. 대학의 입학허가

##### 가. 입학허가서 심사사항

- 수학능력
  -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학력 이수 여부
  - 한국어 구사 능력
  - 대학 자체 기준에 의한 수학능력 등
- 재정능력
  - 등록금, 생활비 등 1년간의 평균 소요경비 이상의 재정능력 등

##### 나. 입학허가신청 제출서류

- 1) 수학능력 입증서류(예시)

- 입학지원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 한국어능력 성적증명서
- 작품 또는 성과물(예 · 체능계) 등
- ※ 수학능력 입증서류는 대학의 장이 자율결정

## 2) 재정능력 입증서류

### <외국인 유학생>

- 일반 학생
  - 등록금, 생활비 등 1년간의 평균 소요경비 이상의 본인 또는 재정보증인의 은행 등 예금잔고증명서(1개월이상 계속 예치) 또는 국내송금 또는 환전증명서
  - 재정보증인의 ①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②재산세 과세증명서 ③유학경비 부담 서약서(입학지원서에 포함)
- 각종 장학생
  - 장학금 지급예정 증명서
- 대학간 교류학생
  - 총 · 학장의 초청장 및 학비 면제 확인서

### <외국인 어학연수생>

- 은행잔고증명서
  - USD 3,000이상의 국내 송금이나 환전 증명서
- 신원 보증서(공증 불요)
  - 학비 등 체류 중 필요한 경비지불 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다. 입학허가 심사

- 각 대학은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검증 등을 통하여 수학능력과 재정능력을 심사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 객관적인 기준 설정 등 실질적인 심사를 통해 입학허가를 강화한다.
-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일정 기준이상의 한국어 또는 영어 능력 수준자의 선발을 권장한다. 단, 교환학생, 정부초청장학생, 외국정부지원 장학생, 한국어연수기관 입학생 및 예체능 학과 입학생과 기술직 학과(전문대) 입학생의 경우 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
- 4년제 대학교 :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또는 영어능력시험 (TOEFL 550, CBT 210, iBT 80, TEPS 550) 이상

- 그 외 학교 :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또는 영어영어능력시험 (TOEFL 550, CBT 210, iBT 80, TEPS 550) 이상

#### 라. 입학규정 관련 기타 사항

- 각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입학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유학생을 선발하도록 한다.
-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선발 기준상의 조건(예: 한국어 성적 우수 등)이 없는 입학생 일률적 학비감면은 지양한다.
- 대학은 유학생 등의 입학시 보증금 예치를 지양한다.
- 대학은 유학원 위탁에 한한 유학생 선발을 지양한다.

### IV. 유학생 등 학업지도

#### 1. 등록 등

-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등록 절차를 필하도록 지도한다.
- 등록을 필한 학생은 수강신청 또는 한국어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배치한다.

#### 2. 유학생 등의 학업 성취도 증진 노력

- 한국어 능력평가가 필요한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 등을 활용하도록 한다.
- 한국어 연수생이 한국어를 단기간 동안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수준별 강좌 및 교재개발에 힘쓴다.
- 학업 성취도가 저조한 학생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보충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목표한 성취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특히 외국의 12년미만 학제 이수자 등 수학능력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완 교육 실시 등 학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방법 실시를 권장한다.
- 유학생 등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강사는 한국어 교원 유자격자 채용을 권장한다.
  - ※ 국어기본법령 :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1~3급)
- 유학생의 졸업을 위한 한국어과정 수업 이수를 졸업학점으로 대체 운영하는 것을 지양한다.

#### 3. 유학생 등을 위한 강좌 개설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 영어를 비롯한 주요 외국어로 진행되는 강좌 개설에 힘쓴다.
  - 자체적으로 외국어 강좌 개설 여건이 미흡한 경우, 인근지역 대학간 컨소시엄을

형성, 분담개설하거나 교류 수강하는 방안 등을 강구한다.

- 한국어 연수생이 한국 문화를 경험함으로써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풍부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 전통문화 공연 관람, 문화유산 답사 등의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한다.

## V. 유학생 등 지원

### 1. 숙박

- 각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의 편의를 위해 외국인 우선 제공을 위한 기숙사 확보에 힘쓴다.
- 외국인 우선 제공을 위한 기숙사 시설 확보가 곤란한 대학은 국내 학생용 기숙사 시설의 일정 비율을 외국인 유학생에게 배정한다.

### 2. 유학생 등 상담활동

- 대학의 국제화 및 유학생 등 유치확대를 위해 각 대학은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국제교류 전담기구를 지정하고 국제교류 및 유학생 등의 전담직원을 두도록 노력한다.
- 유학생 등이 50명 이상인 경우 전담직원 1인 이상 배치하고, 유학생 등이 200명 이상인 경우 전담조직(Int'l Office)을 설치하도록 한다. 전담조직의 경우 기존 부서의 활용도 가능하다.
- 전담직원 : 외국인 유학생 지원·관리 업무 총괄
- 전담조직 : 외국인 유학생 지원·관리 업무 총괄, 외국인 유학생 학사·생활 관련 상담
- 정기적인 유학생 등의 상담활동을 통하여 학업 및 생활 등에 관한 고충을 해소하도록 노력한다.
- 신입생 사전교육시 유학생 등에게는 학교시설 이용과 교내 동아리 활동 등에 대해 별도의 안내교육을 실시하고 국내생활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 대학은 유학생 등의 입학 시 보건복지가족부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을 포함한 의료보험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며 의료보험 가입을 권장 한다.

### 3. 민간 친선 활동지원

- 유학생 등에게 민박(Homestay)을 주선하여 한국 문화와 관습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킨다.

- 유학생 등에게 초·중·고교나 지역사회의 국제이해교육을 위한 자원봉사 기회를 주선하여 상호교류 기회를 확대한다.

#### 4. 장학제도

- 각 대학은 유학생 등 유치 확대를 위해 각종 장학제도를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단, 모 집단계에서의 일률적 학비감면은 지양한다.
- 각 대학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술단체 및 지역내 기업으로부터 유학생 등을 위한 각종 장학금을 유치하여 국가간 교류협력 증진에 힘쓴다.
- 각 대학은 유학생 등의 소속 국가와 유관한 국내 기업으로부터 장학금 유치에 힘쓴다

#### 5. 유학생 등 취업활동 지원

- 유학생 등에게 건전한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을 알선하여 유학생 등이 취업을 위해 학교를 이탈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후 취업을 지원하여 한국 유학 선호도를 제고하고, 기업의 글로벌 인재 채용을 지원한다.

#### VI. 유학생 등 유치 홍보

- 대학 인적·물적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대학간의 협력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힘쓴다.
- 각 대학은 유학생 등 유치 확대를 위해 학교 홍보자료 등을 제작하여 국외에 보급하도록 노력한다.(인터넷 홈페이지 등)
- 각 대학은 외국의 자매결연 대학을 중심으로 학교홍보에 힘써 실질적인 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한다.
- 국내 유학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시행하는 “한국어 능력시험”과 국제교육진흥원이 개발한 “한국어 교육 시스템(KOSNET)”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KOSNET(Korean Language Study on the Internet) :

인터넷을 통한 한국어 학습자료 제공

- 각 대학은 유학생 등이 특정국가·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유치국가 다변화를 위해 노력한다.

## VII. 서식

### 1. 표준입학허가서(Certificate of Admission)

※ 본 서식 수정 · 보완 불가

### 2. 입학지원서(Application for Admission)

※ 본 서식은 각 대학의 실정에 따라 수정 · 보완하여 사용가능

## VIII. 시행

○ 이 지침은 2009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 주요 개정 내용 및 시행 시기

#### 1. 주요 개정 내용

##### □ 적용 대상

○ 4년제 대학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교, 사이버대학

※ 사이버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은 입국절차 적용 배제

○ 각급 대학에 설치된 한국어연수기관

※ 동 내용 중 선발기준 적용 제외

##### □ 적용 기준

###### ○ 선발기준

■ 대학의 책임하에 유학생 유치 · 선발 · 관리 권장(위탁 선발 지양)

■ 유학생 유치 · 선발시 수학능력 등 검증을 위한 서류심사 등 실시

■ 최소 언어 능력 기준

- 4년제대학교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또는 영어능력시험(TOEFL 550, CBT 210, iBT 80, TEPS 550) 이상

\* 교환학생, 정부초청장학생, 외국정부지원 장학생, 한국어연수기관 입학생 및 예체능학과 입학생 등은 조건 완화 가능

- 그 외 학교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또는 영어능력시험(TOEFL 550, CBT 210, iBT 80, TEPS 550) 이상

\* 교환학생, 정부초청장학생, 외국정부지원 장학생, 한국어연수기관 입학생 및 예체능 · 기술직 학과 입학생 등은 조건 완화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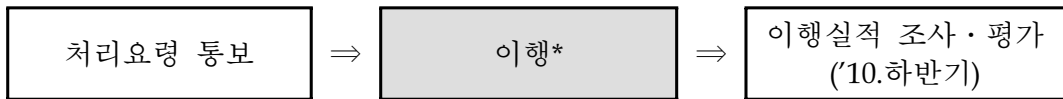
###### ○ 관리기준

■ 유학생 50명 이상 대학은 전담직원 1명 이상 배치, 유학생 200명 이상 대학은 전담조직(Int'l Office) 설치



- 전담직원 : 외국인 유학생 지원·관리 업무 총괄
- 전담조직 : 외국인 유학생 지원·관리 총괄(기존 부서 활용 가능)  
외국인 유학생 학사·생활 관련 상담
-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선발 기준상의 조건(예 : 한국어 성적 우수 등) 없는 일률적 학비감면 제한
- 한국어과정 수업 이수를 졸업학점으로의 대체 제한
- 외국인 유학생 입학규정 제정(대학)
- 기타사항
  - 유학생에 대한 보증금(신분 보장을 위한 예탁금) 예치 제한
  - 외국인 유학생 의료보험 가입 권고

## 2. 시행 시기



- 처리요령 내용은 통보 즉시 시행하되, 입학허가의 심사기준(Ⅲ-1-다)은 '11년 신입생 선발부터 적용
- 이행결과를 '10년 하반기부터 조사·평가하고 대학 공시 및 평가에 반영하여 대학 재정지원에 연계 예정

## 〈부록 5〉 고용 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서

<p>법      무      부</p> <p>MINISTRY OF JUSTICE</p> <p><u>고용·연수(유학)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서</u></p> <p style="text-align: right;">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귀하</p>							
1. 신고대상 외국인 인적사항							
연 번	국 적	성 명	외국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여권번호	체류자격	입국일자	체류기간
2. 신고사항							
<p>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 .</p> <p>근무처 : 직    위 : 주    소 : 성    명 :                      ㉠</p>							
3. 공용란							
비    고				결            재			
				접수일자		소 장	
				접수번호			
				과      장			
담    당    자							

## <부록 6> 외국인 유학생 이탈 유형과 벌금부과 사례

### □ 외국인 유학생 이탈 유형

1. 한국어능력이 부족한 유학생들이 한국어 강의를 이해하지 못해 수업 결석이 잦고,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등 학과 부적응이 이탈로 이어짐
2. 불법으로 공장에 근로를 하던 중 출입국 단속에 적발, 강제 출국 조치
3. 외국인 유학생 휴학 후 귀국을 하지 않고 불법 체류
4. 외국인 유학생이 자퇴를 하고, 수업료를 환불 받은 후, 귀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
5. 졸업 후, 본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

### □ 외국인 유학생 관리 소홀로 인한 벌금 부과 사례

#### <사례 1> 졸업생 미신고(대전 00대학)

- 2006년 졸업한 유학생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지 않아, 금년 7월경 관할 출입관리사무소에서 과거 3년간 유학생 이탈 내역 중 미신고 내역이 확인되어, 해당 대학에 미신고 유학생 1인당 벌금 50~200만원 부과되고, 1개월간 해당대학 사증(비자)신청 정지 조치
- ☞ 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 등에 관한 지침  
(III-2 외국인유학생 변동사유 발생 신고)

#### <사례 2> 불법취업(충남 00대학)

- 유학생이 수업을 자주 결석하였으나, 학과에서 이를 방치하였다가, 추후 출입국사무소에서 00근처의 김치공장에 불법외국인근로자가 있다는 제보를 받아 급습하여 검거 하던 중, 00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적발되어, 해당학과 학과장 및 담당자가 관리 소홀로 인하여 출입국에서 조사를 받고 벌금을 받았음.
- ☞ 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 등에 관한 지침  
(III-3-나. 외국인유학생 이탈방지를 위한 상담 및 현황 통보)

#### <사례 3> 체류기간 연장 미신고(충남 00대학 대학원)

- 대학원생이 수료 후 논문준비로 인하여 한국에 남아있을 경우 반드시 체류기간 만료 전에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하나, 체류기간 만료 후 6개월 이후에 연장신청을

하여, 해당유학생한테 벌금이 100만원이 부과됨.

- ☞ 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 등에 관한 지침  
(II-1 적용대상)

#### <사례 4>

- 출입국 공무원이 지방출장을 가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유학생들이 서빙을 보고 있어 “어디 학생이죠?” 라고 물어보고, 바로 해당 00대학을 불시에 점검하여, 출입국관련 위법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벌금을 받았음.
- ☞ 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 등에 관한 지침  
(III-3-나. 외국인유학생 이탈방지를 위한 상담 및 현황 통보)

#### □ 외국인 유학생 벌금 징수 사례

##### <사례 1> 비자 미연장

- 몽골 유학생이 본인의 체류만료기간이 2006.8월 이었으나, 비자연장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07. 2월경 졸업을 할 때 적발이 되어 벌금 70만원 부과
- ☞ 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 등에 관한 지침  
(II-1 적용대상)

##### <사례 2> 범죄 연관

- 2007. 3월경 중국인 사기단(보이스피싱)이 00대학교 언어교육원생 4~5명에게 접근하여 통장개설을 도와주면 사례금을 주기로 하고 통장을 개설하였다가 학생 1명의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벌금형 100만원이 부과됨.
- ☞ 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 등에 관한 지침  
(III-3-나. 외국인유학생 이탈방지를 위한 상담 및 현황 통보)

## < 부록 7> 대학 내 학과별 외국인 유학생 관리 지침 사례

### 1. 외국인 신입생(편입생 포함)이 입학 하였을 경우

- 외국인등록증 발급여부 확인
- 외국인등록증 체류자격이 D2(유학생)인지 확인(D4는 어학연수생)
- ※ 입학 후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체류기간 연장 지도

### 2. 매 학기 초, 유학생의 수강신청 지도 및 등록금 납부여부 확인

- 유학생이 소속된 학과에서는 수강신청기간 이전에 수강신청 기간을 알려주고 수강신청 안내 및 지도를 하여, 반드시 수강신청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수강신청이 안될 경우 유학생 인적사항을 대외협력과로 연락
- 유학생이 등록금 납부기간 중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 미등록제적이 되지 않도록 등록안내 및 지도
- 만일, 유학생이 미등록제적자가 되었을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고용·연수(유학)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서(양식 별첨)]**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함.  
※ 신고절차 : 소속 학과 → 단과대학/대학원 행정실 → 대외협력과(국제교류)
- 유학생 이탈 또는 제적처리가 되면 14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최종신고가 되도록 협조 요망, 만일 신고기간이 14일이 초과되는 경우 해당 학과에 벌금이 부과됨.

### 3. 학기 중 유의사항

- 수강과목의 잦은 결석과 연락이 잘 되지 않을 경우, 유학생이 학과에 부적응 또는 이탈 가능성이 보인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학과에서 학생에게 주의를 주고, 상담일지(양식 별첨)를 작성 보관
- 만일 유학생이 1주일 이상 모든 수강과목을 무단결석하고 연락이 전혀 안되며, 유학생의 이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시, 학과장과 대외협력과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고, **[고용·연수(유학)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서]**를 6하 원칙에 맞추어 상세히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함.
- 제출방법 : 소속 학과 → 단과대학/대학원 행정실 → 대외협력과(국제교류)
- 유학생 이탈 또는 제적처리가 되면 14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최종신고가 되도록 협조 요망, 만일 신고기간이 14일이 초과되는 경우 해당 학과에 벌금이 부과됨.

### 4. 유학생의 학적이 변동되는 경우(휴학, 자퇴, 수료, 졸업 등)

- 유학생이 휴학원, 자퇴원을 제출하는 경우, 유학생 소속학과에서는 휴학과 자퇴 처리이전에 반드시 대외협력과로 해당 유학생을 보내어 지도받도록 조치 요망
- 석·박사 학위과정 수료자의 경우, 유학생의 인적사항과 체류연장기간을 대외협력과로 통보
- 졸업예정자의 경우, 유학생의 귀국(출국)예정 1주일 전에, 비행기티켓 복사본을 첨부하여

대외협력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완전귀국(출국) 당일에는 대외협력과로 귀국(출국)여부를 통보

- 유학생의 학적이 변동되는 경우(**휴학, 자퇴, 귀국, 졸업** 등)에도 위 4번과 동일한 양식과 절차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14일 이내에 변동신고를 해야 한다.

※ 휴학자에 대한 처리 - 외국인 유학생 관리지침(법무부) ※

-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한 경우에는 체류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휴학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출국하여야 함.
- 부모가 국내거주하거나 계속 국내 체류목적이 부합되는 경우에는 휴학일로부터 30일 이내 합당한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휴학으로 출국한 경우, 복학시에는 입국절차에 따른 유학(D-2) 사증을 다시 발급 받아 입국하여야 하며, 국내에서 다른 자격으로 체류중인 경우 유학(D-2) 자격으로 다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야 함.
- \* 휴학한 경우 체류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체류허가가 취소되므로 반드시 출국 또는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시 법 24조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됨.

## 5. 유학생의 해외(본국) 출입국 사실 파악 및 유학생 DB 구축

- 각 학과에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시의 점검을 대비하여, 항상 유학생의 해외(본국) 출입국 사실 파악 및 매 학기 **유학생의 DB현황**(체류형태, 국적, 영문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체류기간, 체류자격, 출결사항, 성적, 등록여부, 숙소, 연락처 등)을 구축하여 관리
- ※ 유학생 DB 양식 첨부

## 6. 아르바이트를 하는지 확인할 것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은 학생 외에는 모든 아르바이트는 불법이므로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도록 지도함
- 만일 위 허가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적발시, 해당 유학생은 벌금 및 본국추방이 되며, 해당 업소도 벌금이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함

<부록 8> 대학 내 외국인 유학생 상담일지 (견본)

유학생 인적사항	학과(부)	학년	성명	
여권번호		학번		
생년월일		상담 일자		
상 담 내 용				
상 담 후 조 치 사 항				
기 타				

학 과 조 교 : (인)

학과장(지도교수) : (인)

■ 집 필 자 ■

연구책임 : 강희숙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병학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장

공동연구 : 류재진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기획연구 2009-19 · 충남지역 외국인 유학생의 현황과 과제

글쓴이 · 강희숙, 최병학, 류재진 / 발행인 · 김용웅 / 발행처 · 충남발전연구원

인쇄 · 2009년 12월 31일 / 발행 · 2009년 12월 31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금홍동 101 충남발전연구원 (314-140)

전화 · 041-840-1230(직통),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229

ISBN · 978-89-6124-122-9 03350

<http://www.cdi.re.kr>

©2008. 충남발전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